APR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84 1982년3월3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rch 30,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인 쇄 인 : 박 정 서

◇여학생 배구팀도 출전, 열전중이다. 이들은"앞으로 우리도 교민행사에 참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연합교회 우승

춘계배구 19개팀 참가,최다기록

3개 여학생팀, "여자부 제외말라" 당부

제4셋에서 15 : 1, 파죽지세의 성도교회팀은 마지막 셋에서 중앙한인 연합교회의 끈기에 손을들고 말았다.

제5셋의 스코아는 15 : 9 2시간에걸친 청소년부 결승전 셋 스코아 3 : 2 로 중앙연합교회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로써 최우수 선수상의 정기섭이 리드하는 이팀은 지난2월 27일한인배구대회때 성도팀에 당한 분패를 설욕했다.

27일 이토빅콕 웨스트·험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한인배구협회(회장문영환)창립춘계 교민친선배구대회에 모인 5백(연인원)여 교민들은 밤9시35분 대회가 끝날때까지 자리를뜰줄몰랐다.

이날대회는19개팀이 참가, 토론토교민사상 단일체육행사에 가장 많은팀이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2월 브랜돈 운동구점 주최 대회에는 14개팀이 참가했다. 여자팀도 3팀이 참가, 대회를 다채롭게했다.

여자부 최우수 선수상의 김소라양과 캐롤리가 리드하는 임마누엘 교회팀은성도교회(준우승), 한인장로(3등)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15~18세전후 여학생들은"한인사회에는 많은 교민행사가 있으나 우리가참가할만한 행사는 많지않다. 앞으로 교민체육행사가 남자들만의 경기보다 여자부경기도 주최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가끔 이방인같은느낌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10개팀이 참가한 O.B전(30세이상)은 5개팀씩 2개조를 구성, 리그전을 벌였다. 대부분의 OB팀은 1~2일전에 급조, 선수부족, 또는 연습부족으로 엎치락뒤치락 했다. 우승한 새한교회팀과 준우승의 실업인협회팀은 왕년의 운동선수출신들이 주축, 청소년팀에못지않은 실력을 보였다.

이날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청소년부. 17~ 21세전후의 청소년 6 명씩으로 구성된 6개의 교회팀은 상오9시부터 3개팀씩 풀리그 예선전을 벌였다. OB(올드·보이)전 경기는 체력을 고려, 각팀 7 : 7에서 시작되는 편법을 썼으나청소년부나 여자부는 정식룰을 적용했다.

예선에서 A조의 한인장로교회와 중앙한인교회, B조의 성도교회, 영락교회가 각각 1, 2위, 결승토나먼트에 올랐다. 중앙연합(353 서본·스트릿소재)과 성도팀은 각각예선2게임, 준결승의 3게임으로 3시간의경기를 치뤘으나 피로의 기색없이 결승전에 임했다.

첫셋부터 열전, 듀스를거듭한끝에 중앙이 첫셋을17 : 15로 잡았다. 제2셋도 15 : 9로 따내 중앙이 쉽게승리하는듯 했으나 여러배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힌 석남일과 최상길이 활약하는 성도팀은 심기일전, 15 : 12, 15 : 1로 3, 4셋을내리이겼다.

마지막셋을 맞은 중앙은 정기섭의 노련한 수비와심기호선수의 요소를 찌르는 적시공격으로 15 : 9로리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후 배구협회 임승철 사무장은"우리협회는 늦게 창설됐으나 그동안 숨은배구인들이 많아 수준이 높았다. 특히 이번 우승팀의 정기섭군은 그동안 교포청소년들을이끌고 꾸준히 연습해왔다. 교포팀이 구성되면 온타리오 청소년리그에도 참가할 것이며 3~4 위정도는 무난하다"고 말했다. 이 대회 는 정세용씨등 심판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질서정연히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팀등 교포2세들의 스포츠맨쉽은 뛰어났다.

입상팀과 개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여자부
임마누엘〈우승〉
성 도〈준우승〉
한인장로〈3등〉

◇여자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김소라 (임마누엘)
공격상 : 캐롤·리(임마누엘)
수비상 : 전지향(한인)
세터상 : 석인선(성도)

◇O B부(30세이상 남자)
새한교회〈우승〉
실 협〈준우승〉
신 우 회〈3등〉

◇O B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선흥기(새한)
공격상 : 송수언(신우)
수비상 : 김광수(새한)
세터상 : 조기연(실협)

◇청소년부
중앙한인교회〈우승〉
성도교회〈준우승〉
영락교회〈3위〉

◇청소년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정기섭(중앙한인)
공격상 : 심기호(중앙한인)
수비상 : 조성섭(영락)
세터상 : 피터강(성도)

◇팀공로상
중앙한인 : 임문규, 함철호
성도교회 : 석남일, 최상길
영락교회 : 조정섭, 김용식
한인장로 : 장광용, 권도웅

◇결승전 제5셋에서 중앙연합교회와 성도교회가 손에 땀을쥐는 공방전을 벌이고있다.

여권의 목적명시 철폐 외국비자 쉽게 받도록

(서울27일=연합)한국정부는 여권에 여행목적을기재하는 현재도의 철폐를검토중이다.

외무부의 직원은 27일일부 서울주재 외국공관이한국인들의 여권에 기재된여행목적때문에 비자 발급을거부,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일부 외국공관들은 비자신청자의 여권에기재된 여행목적과 인터뷰때 신청자가 밝히는 여행목적이 다르다고 비자를 거부하는일이 종종있었다.

친척방문이나 관광용 여권은 여행이 끝나면 무효화되고, 색갈도 일반여권과 다르다.

친척방문 해외여행은 금년7월, 관광목적 해외여행은 83년1월에 자유화된다.

세계서 가장 오래 일해

한국근로자들 놀웨이의 두배

주당 여성 53.5, 남성 52.8시간

(워싱턴 28일=연합)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남녀 노동자들이 주당 52.8시간및 53.5시간씩 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0 통계에 따르면 놀웨이 남녀노동자들은 주당 31시간및 25.8시간 노동, 세계 최단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길었다.

일본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42.4(남), 38.4(여), 이스라엘은 39.2(남), 35.1(여)였다.

금리 또 다시 인상

3개월만에 17% 로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금리는 다시 움직이기시작, 최우선 고객에 주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가 17%까지 인상됐다.

캐나다 최대의은행 로얄뱅크는 26일부터 이 금리를 적용, 지난1월 16.5%로 떨어진 이래 3개월만에 금리가 오른것이다. 81년 12월까지의 금리는 17.25 %였었다. 로얄뱅크에 이어주요 은행들도 곧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는 곧 15.2%선이 넘을것으로 보인다.

경제침체기에 은행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대해 로얄뱅크 토우랜드 후레이시 회장은"은행이 빌려쓰는돈 자체가 올라 금리인상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말했다.

연방정부는 미국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캐나다달러 가치에대해 계속 강력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있어 금리는 계속 인상될 요인을 갖고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아직 변동이없다.

한편 약간 회복세를 보였던 캐나다달러는 25일다시 떨어져 캐나다달러 1달러당 미화 81.55센트를 기록했다.

모국방문 한식성묘 조총련계 재일동포

(서울26일=연합) 1천여명에 달하는 일본거주 조총련계 교포들이 한국의전통적 명절인「한식」(4월6일)에 성묘하기위해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성묘단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환영식에 참석하며, 산업시설도 관광하게된다.

75년부터 지금까지 고국을 방문한 조총련계 재일동포는 3만5천명에 이른다.

북한, 남북대화 응해

미「홀」국무차관보 전망

(서울25일=연합) 미국무성 고위관리는 25일 북한이 곧 한국현 정부를 남북대화 대상으로 인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하원외교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존·홀드리지 극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는 남한의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의 증대 및 국내 정치의 안정을 고려할때 평양측은 남북한의 세력균형이 남한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산업기반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반면 남한은 경제하부 구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홀드리지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는 어떠한 침략도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이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전두환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와는 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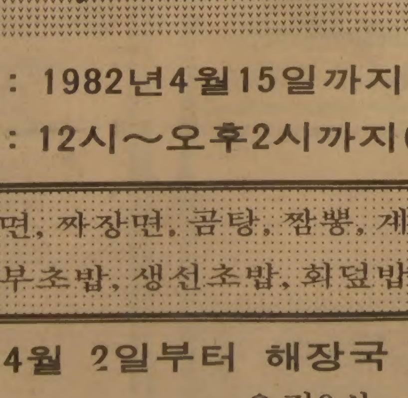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결코 잡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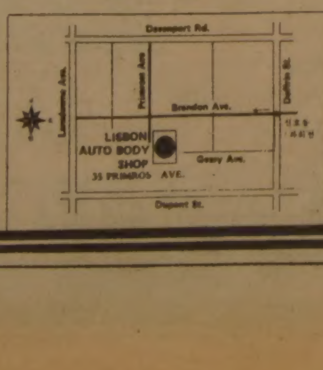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완전 BODY WOR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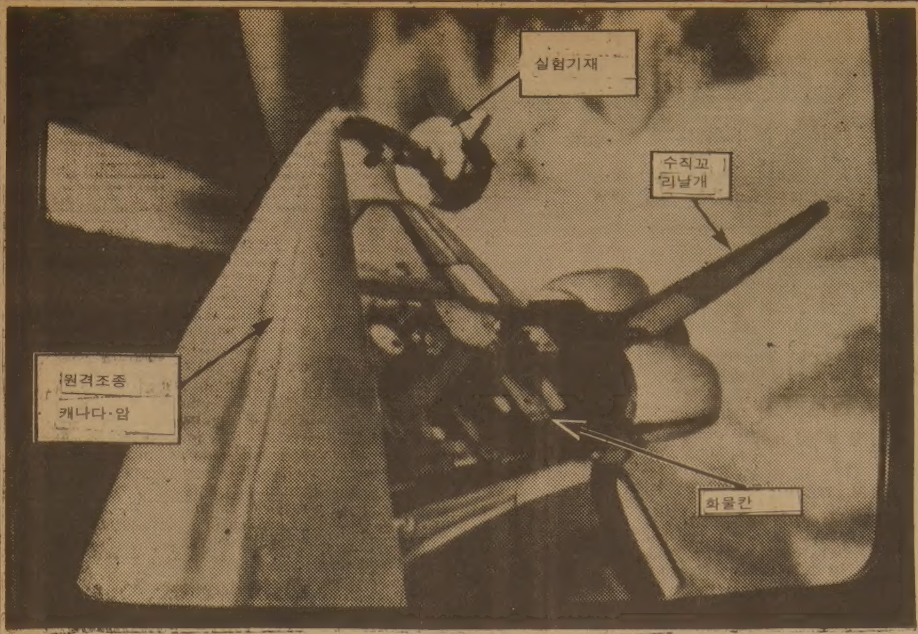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점심특별 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개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 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이옥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우주선 콜럼비아호 에서 캐나다 제조 캐나다·암(원격조종 로버트 팔)이 화물칸에 있던 실험기재를 우주선밖으로 운반하고 있다.

캐나다·암 성공적 작동

콜럼비아호 주요테스트마쳐

(휴스톤)우주선 콜럼비아호에서 가장 중요부분인 「캐나다·암」은 25일 첫번째 주요테스트를 무난하통과했다.

캐나다제조 원격조종 로보트 팔「캐나다 암」은 우주공간에서 짐을받아 우주선 안으로 운반하고 우주선내의 배설물등을 우주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수행한다. 이짐은 지구에서 로켓트로 쏘아올린 우주 비행사의생활필수품, 실험기재외에 적국의 요격용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우주선 밖으로 떨어져나간 우주비행사일수도 있다. 우주비행사 고든·플러튼씨는다이아몬드를 깍듯 정밀하게 15미터(50피트)길이의 로버트 손을 작동, 160킬로(350파운드)의 실험기재를우주선 밖으로 내보냈다가다시 우주선 안으로 쉽게 수거했다.

비행사들은 이날 아침예정보다 일찍 일어나 알미늄및 흑연으로만든 캐나다·암을 작동,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거나 화물을 받아들이는 일을 시험했다.

휴스톤 우주센터의 캐나다 기술자들은 캐나다·암의 성공적 작동에 열광했다. 캐나다국립연구소(NRC)의 윌리·처윈스키 씨는 "캐나다 기술자들은 열광할수 있을만큼 열광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암은 토론토소재 스파·에어로 스페이스회사가 국립연구소와의 계약에 의거, 제작한 것으로 세계 최고의 로버트 팔이다

호주의 로리· 휘티 우승

한국선수들 부진, 남자4위 여자5위

(서울 28일=연합)28일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호주의 토리·휘티(22)선수가 42.195km를 2시간14분34초에 완주, 우승했다. 40km지점까지 중위그룹에서 달리던 휘티선수는 선두의 탄자니아 소속 아가피어스·메이슨을 추격, 두선수가 종반까지 각축전을 벌였으나 휘티가 36초 앞서 결승테이프를 끊었다. 2위 메이슨의 기록은 2시간15분10초였다. 3위는 스웨덴의 토모이·퍼슨 선수로 2시간15분36초였고 여자부에서 캐나다의 신디·해밀톤은 2시간49분13초로 아깝게 우승을 놓치고 2위, 뉴질랜드의 알리슨·로즈가 2시간43분11초로 우승했다.

마라톤 중흥을 기약하는 한국선수들은 여전히 부진, 남자부의 김종윤선수만이 2시간16분58초로 4위를 기록, 한국선수로 유일하게 10위이내에 들었다.

여자부의 안춘자선수는 3시간02분10초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했다.

여의도를 출발 강변도로를 돌아오는 이 대회에는 외국선수 186명을 비롯, 모두 7,426명이 참가했다.

마라톤의 세계기록은 81년 뉴욕마라톤의 2시간08분13초이다. 한국기록은 2시간16분15초로 신진 김종윤선수의 기록은 43초가 모자랐다.

▲남자부 기록
1) 로리·휘티(호주)—2:14:34
2) 메이슨(탄자니아)—2:15:10
3) 토모이·퍼슨(스웨덴)—2:15:36
4) 김종윤(한국)—2:16:58
5) 안토니오·에로타보(이태리)—2:17:06

▲여자부 기록
1) 알리스·로즈(뉴질랜드)—2:43:11
2) 신디·해밀톤(캐나다)—2:49:13
3) 수·그렌(미국)—2:49:49
4) 드레이크(호주)—2:54:54
5) 안춘자(한국)—3:02:10

〈해밀톤 소식〉

회장에 조용구씨

해밀턴실협 탄생

(해밀턴)해밀턴지역 한인실업인협회가 지난달 17일, 해밀턴시 멀티칼추럴센터(500 James St, N)에서 발기인총회를 가졌다. 협회의 필요성(국승담), 실협발기역사(장홍규), 실협전망(차동열)등의 발언 후 총회는 회칙초안을 통과시키고, 초대회장에 조용구씨(전 한인회장)를 선출했다.

현재 해밀턴및 이웃지역의 교포경영 실업실태는 개인가게 43, 체인스토어 7, 선물가게 2, 핀볼 1, 퍼브(술집)2, 미장원 1, 주유소 1이다.

이날 발기총회는 회비를 연 $30로 정하고, 오는 3일(토) 하오 2시 같은 곳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해밀턴실협 임원진
회장: 조용구
부회장: 장홍규(해밀턴 담당)
부회장: 정 덕(버링턴 담당)
총무: 임재량
재무: 권태규, 사업: 차동열
지역간사: 김성진(동부)·정원규(서부)·이희용(버링턴)·임재량(마운틴)

교민친목의 밤
해밀턴한인회

(해밀턴)해밀턴지구한인회(회장 이영구)는 4월17일(토) 저녁8시~새벽2시, 시릴(Syrill)교회 친교실(204 Park St, N, Hamilton)에서 봄 친목의 밤 행사를 갖는다.

TV 1대가 1등상인 복권추첨 오락프로, 댄스파티를 겸한 이날 파티에서는 만찬(식사)이 제공되며 회비는 무료이다.

교 민 동 정

◆조성학(해밀턴한인회 부회장)=모친 김북내여사(79)생신파티를 3월7일 중국음식점에서 성대히 치렀다.

◆김낙중(해밀턴 한인교회 목사)=지난13일 83 Hillview St. Hamilton으로 이사했다.

◆원종선(Ferther Variety 경영)=해밀턴 킨스턴·로드에 새 가게를 열었다.
전화 : 560—0612

◆양재효(35)토론토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Neuclear Engineering)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번 졸업식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는다.

양씨는 75년도에 이민, 그동안 CN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파타임으로 학교에 다닌지 2년반만에 전과정을 마쳤다.

양씨는 많은 동창들이이곳에 와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있는데 자극받아 공부를 시작했다고 동기를 밝힌다.

양씨는 서울고, 한양공대 원자력과를 나왔으며 현재 결혼하여 1녀를 두고있다.

조성호관장 환송연

조성호 토론토 한국무역관장의 환송연이 지난 25일 세계무역회관(The World Trade Centre, 60 Harbour St, Tor.)에서 무역관 자축회형식으로 열렸다.

이날 송별회에는 교포사회 인사들과 캐네디안등 100여명이 모였다.

26일 본국으로 향한 조관장은 "해외근무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교포들한테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간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관장의 송별회와 함께 거행할 예정이던 신임관장 환영회는 서울본부일이 바빠 이전식재 관장의 출국이 늦어져 4월로 미루어졌다.

81년도분 개인세무 보고

경제생활과 우리 ⑯
세무상담편 ‖ 김명숙회계사무소제공

외국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만 해당

교회등의 기부금은 소득의 20% 만 인정

세무보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3,170의 개인 기초공제액(Personal Exemptions)을 받고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공제액($1,980)을 더 받게 되며 배우자의 순수입(Net Income)이 $3,270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며 과세대상수입(Taxable Income)이 없는 경우에는 스케쥴 3을 작성하여 배우자의 노령자 공제액을 더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혈연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같은 혜택(Equivalent to married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스케쥴 6을 완성해야 하는 이 경우의 예로는 이혼한 엄마(혹은 아빠)가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 독신의 아들(딸)이 연로하신 부모(순수입이 $3270을 넘지 않아야 함)를 모시는 경우, 미혼(혹은 이혼이나 별거중의)의 형(언니)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등으로서 그 부양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순수입이 $3,270 미만인 21세 이하의 자녀들(만일 조카들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조카들도 가능함)은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8세미만의 경우에는 $590(순수입이 $2,090 이하인 경우), 혹은 순수입이 $2,090 이상 $3,270 미만인 경우에는 $3,270에서 $2,090을 뺀 금액의 절반을 $590에서 뺀 금액이 공제가 된다.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는 순수입이 $2,180 이하인 경우에는 $1,090(순수입이 $2,180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산을 다시 함)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1세가 넘는 자녀로서 순수입이 $3,270 미만이고 병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Infirm)나 대학 (혹은 칼리지)에 풀 타임(Full-time) 학생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자녀와 똑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외의 부양가족으로서는 부모,형제,삼촌,숙모(친가와 외가)등으로서 21세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한이 똑같이 주어진다. 이 경우도 스케쥴 6을 완성해야 한다. 한국(혹은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부양가족의 공제는 반드시 TIE-NR 양식을 작성한다. TIE-NR과 그외의 다른 양식들 TI-M(이사비용)등은 토론토지역 세무소(36 Adelaide E.)에서 구할 수 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부양가족공제는 지난 81년 11월 예산안에서 폭이 많이 좁혀져 82년도 부터는 배우자에만 해당이 된다.

81년도에 이민오신 분들은 이상과 같은 본인과 부양가족 공제가 캐나다에 거주한 동안만큼만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5월1일에 캐나다에 오신 분은 기본공제가 $3,170×245/365=$2,127.81이 된다.

여섯째로는 과세대상액(Taxable Income)을 계산하는 일이다. 교회및 자선단체 기부금의 합계가 $100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981년도에 끝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동안을 택해서(예를 들어 80년 5월에서 81년 4월까지 혹은 80년 1월2일부터 81년 1월1일까지 등) 그 기간동안의 총의료비에서 자기의 순수입의 3%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받는다. 교회나 그외의 등록된 자선단체에의 기부금은 총기부금이 자기의 순수입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20%가 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이 다음해로 넘어 가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스케쥴 9를 완성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자, 주식배당금 혹은 자본증가등이 있는 분들은 최고 $1,000 까지의 공제를 받는다. 이의 계산은 스케쥴 4를 작성한다. (계속)

◇조성호 무역관장 환송식에서 나란히선 교포경제계 3대표(왼쪽부터 최승락 외환 나은행장 조관장·이영현 한인무역인협회장)

GM 캐나다 $1억계약 취소

이라크자동차판매 도요다에 뺏겨

(오타와)캐나다 제너럴·모터즈(GM)회사가 이라크에 수출하려든 1억달러어치 125,000대 자동차 판매계약을 일본의 도요다(Toyota)뺏겼다.

이락정부는 작년도 GM이 선적한 13,000대의 캐나다제 쉬보레·말리부가흠이 있어 GM과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26일 연방정부에 통보해왔다.

이같은 계약취소는 최근 오샤와공장의 직원 1,750명을 일시해고한다고 발표한 GM이나 무역국으로서의 캐나다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다.

이락정부는 작년여름 GM자동차의 첫 선적이 시작된 이후 계속 제품에 불만을표시, 아예 GM직원들이 이락에 상주하면서 수리를 해왔다.

대 이락 수출은 캐나다 최초의 대규모 해외자동차 완제품 수출이었다.

올해 수출키로 계약됐던 125,000대의 자동차는 애초의 선적예정일이었던 작년10월부터 핼리팩스에 묶여있다.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금년들어 더욱 침체에 빠져 2월중 승용차판매는 작년도보다 38%나 떨어졌다.

GM은 81년도에 1030만달러 적자를 보았다.(80년도에 5천5백만 달러 흑자 기록).

81년도에 포드는 9천89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크라이슬러는 81년도 첫 9개월간 294만달러 흑자를 보았다.

5만弗로 通信위성 발사

모로코人 가브르 계획 추진
캐나다 破産 무기단지 매입

아랍의 한개인이 파산한 캐나다의 무기개발단지를 매입, 통신위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하는등 상업적 우주개발연구소로 개편하고 있어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도 우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이집트태생의 모로코인 사드·가브르씨. 그는 캐나다우주연구회사(CST의 창업자 제럴드·불씨가 SRC소유의 무기개발단지에서 생산한 군사장비들을 국제금수조치를 위배하고 불법적으로 남아연방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6월 징역형을 받은후 파산하자 이를 매입했다.

가브르씨는 이 단지를 북미유수의 첨단기술개발단지화하기 위해 2억5천만달러를 투자, 우주및 군사연구센터로 개편중인데 캐나다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규모의 자금무상공여 또는 투자의 형식으로 지원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1백여가지 이상의 발명특허를 갖고있는 가브르씨는 이 연구센터의 주요사업계획중에는 위성궤도추적및 항공탄도연구(S판 STAR)도 포함 돼있으며 이 STAR 계획에 따라 통신위성을 마치 대포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발사장치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드·해틀리우주기술그룹의 부회장 얼·윌리크씨는 이같은 가브르씨의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인정, 실용화될 경우 종래의 위성발사경제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리크씨는 현재 미항공우주국(NASA)에 의한 통신위성발사 비용은 2천5백만달러이지만 안전성을 고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없으나 가브르씨의 아이디어대로 되면 그 비용은 불과 5만달러밖에 들지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가브르씨는 그의 우주및 군사연구센터에서 STAR 계획연구추진에 참여할 항공통신·레이다·마이크로웨이브·광학·탄도학분야의 전문과학자들을 모집중이다.

가브르씨의 우주 및 군사연구센터는 캐나다 퀘벡크주의 미국과의 국경선에 있는 하이워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2천20정보의 부지를 확보하고있다.(뉴욕지사)

가정의 벗
한국일보

BREAD-MAN
(Woodchester) Ltd.
2458 Dundas st. W. Miss. Ont.

◎년간매상 : $190,000
◎면 적 : 918 sq. ft.
◎렌 트 : 965불
◎리 스 : 83년 3월31일까지
◎옵 션 : 5 년
◎아 스 킹 : $120,000
◎다운페이 : $50,000

※한 가족(4명경우)이 할 경우 년 수입 5만불 보장.

문의처☎ : 675—8930
Mr. 오

토론토 한인 성서신학원

1982년도 제1학기 학생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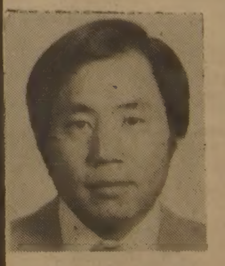
평신도 선교의 일선요원과 교회를 봉사코저하는 사명자들의 훈련기관인 본교는 다음에 의하여 신입생을 모집 하고자함.

①모집인원 : OO명
②지원자격 : 세례교인으로써 성서를 배우고 교회봉사를 원하시는분
③원서접수 : 1982년3월31일까지 본교 교무과에 제출할것
④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사진 2매. 수업료$65
⑤기 타 : 상세한 문의는 본교교무과로 연락바람
(1183 Davenport Rd Toronto Ont M6H 2S7)
전화 : 535—6864
⑥재학생은 4월1일 오후6시 개강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람
⑦개학일자 : 4월1일(목)오후6 시

강 사 : 실천신학(박희민 목사) 성령론(김용출 목사) 민중신학 (이상철 목사)
기독교윤리(김상호 목사) 조직신학(홍순관 목사)
현대신학(김낙중 준목) 선교학(홍신웅 목사) 비교종교(유재신 목사)
성경지리(김경진 목사) 성서 해석학(조창환 목사)

토론토 한인성서 신학원장
박 희 민

종 합 보 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김보경 박사

이민생활과 스트레스(2)

김 보 경 박사(심리학)

2. 이민자들은 보다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갈등이란 이렇게할까, 저렇게할까 결정하기 어려울때 생기는 불쾌한 심적상태다. 결정이란 결정해야할 사건이 확실명료할때는 쉽다. 그러나 결정은 해야하는데, 그 내용이 혼미할 때는 고통스럽다.

우선 이민자들은 본국과 새사회의 중도에서서 어느쪽에 충성해야 할까에 대하여 시련을 받게되고, 또 전통문화와 새 사회 문화 사이에서 혼돈을 거듭하게 된다. 살아갈수록 모든것에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수록 명료한 결정을 하기는 더어렵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너무나 명료하던것이 여기에서는 그렇지않다. 얼마만큼 양보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억지써야하는지 알수없게 된다. 불원간 남편은 옛날 한국에서 보아왔던 아내가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발견하게되고, 아내역시 남편을다른눈으로 보게된다. 부모와 자녀관계도 그렇다. 일치성이 없어지고, 통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표준을두고 행동해야 할지가 어렵게된다. 모든것이 확실하지 않을때오는 심적상태인 것이다.

이민자란 언제나 모호한 입장에 있다.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러하다. 더구나 유색인종으로 백인 과수 집단속에 살때 더욱 그러하다. 가정에서 세대간에 오는 충돌, 인종문제, 정치적 참여문제, 장래문제, 무엇하나 명료히 보고 결정할수 있는게 있는가?

3. 이민자들은 보다 긴박감을 느낀다.

이민일세의 경우 대부분 30세 전후로해서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민생활이란 옛날것을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그만큼 더 긴박감을 느낀다. 몇년이 지난후 자기의 처지와 한국에 그냥 남아있었던 옛 친구나 동료들을 비교하면 안타까운생각이 든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뒤졌는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16시간의 노동도 불사하며, 어떤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기반을잡으려고 한다. 한인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치열한 경쟁, 교회내의 분쟁, 시기모략등 비건설적인 현상도이민자들의 긴박한 심리적현상으로 볼수있다. 빨리 성취해서 남보다 앞서 달려야 하겠다는 마음은 발전상 좋은 결과도 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무리한 현상을 가져온다. 캐나다에이민온 사람들은 이미 이민이란 어려운 고비를 넘어온 사람들이므로 한국이나 캐나다 이 고장에서 출생하여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에 비하여 더 야심적이고 경쟁적인 사람들임에틀림없다. 심리적 긴박감은육체적 정신적 긴장감을 언제나 가져온다. 언제나"빨리빨리!"또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마침내 우리들을 급기야다시 돌이킬수없는 허탈상태에 몰아넣게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을 언게하는 원인이 되게 한다. 심장병 전문가들은 심적긴박성이 얼마나 심장질환에 밀접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휴식하기 어려운 생활이 바로 이민생활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의욕저지, 갈등, 긴박성을 이민생활의 특성으로둘때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는 심적 스트레스의 요소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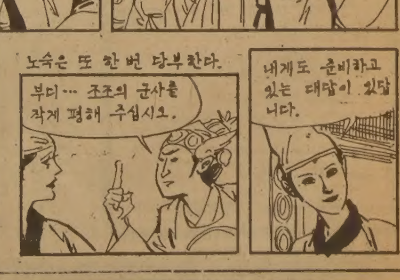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우리 생활을 어떻게 저해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계속)**

◆제인·폰다(43)는 손수 고안한 특수체조로 자신의 체격을 가다듬는 것은 물론 강습소를 차려 이를 보급하고 있다. 곧 RCA·비데오·디스크와 KVC카셋으로도 시판될 체조교재 <제인·폰다즈 워크아웃>은 이미 베스트·셀러이다.

최근 <황금연못에서>로 아카데미상 후보로 지명됐고, TV시리즈 <9시부터 5시까지> 프로의 제작자로도 활약하는 제인·폰다는 1남 1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봉사
단체손님 환영, 염가로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 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 캐나다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40)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나의 부친이 먼저 회 복되어 비틀거리는 몸으로일어나서 큰 바위에 기대어 얼음이 얼어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번쩍거리는 푸 른 호수물을 바라보았읍니다.

그 큰 호수의 표면에는 전혀 움직이는것이 없이그저 잔잔할 따름이었고 아무것도 떠있는것이 없었읍니다. 카후트나의 카약이 그가 없어질때 함께 사라져 버렸고 물속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젠 보이지 않았읍니다.

나의부친과 헤좌우는 그들의 카약을 내버렸고, 아마 누가 죽인다고 위협했을지라도 아무도 툴레말리곽으로 다시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카약으로는 7일이 걸리지만 걸어서 그곳을 넘어오자면 약20일이 걸리는거라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들은 거의 죽을뻔했지요. 그들이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앙게오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후로 아무도 툴레말리곽을 배로 올라가볼 엄두도 못 내었읍니다.

그후에 사람들이 여름철에 이땅의 정문에서 더멀리 북쪽에있는 아킬링네아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소로 여행할때에는 카약으로 툴레말리곽의 남쪽끝 까지만 올라갔읍니다. 여기에사람들은 카약을 남겨두고키토리악토르미우트의 캠프까지 호수를돌아 걸어와서 카약을 빌려타고 북쪽으로 다시 여행을 했읍니다.

엘라이투트나가 아킬 링네아로 여행했던 일을 자주 들려주실때마다 나도그곳을 가보고 싶었지요. 그곳은 일킬릴쿠—인디안 리버(백인들이 텔론강이라고 부름)옆에 위치한 큰 산줄기였읍니다.

일킬릴쿠는 멀리 남서쪽의 수림지대에서 서쪽끝의 평원으로 흘러오는 강입니다. 거기서 이강은 카마네루악 호수로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바다로 이어지지요. 리버오브멘 역시 카하레루악 호수로 흘러 들어가며 킥토리악 토르미우트가 살고 있던 툴레말리곽의 북쪽으로 흐르는 강도 이곳으로 흘러 갑니다.

이 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들은 항상 얼어있는 바닷가에서 일킬릴쿠까지 뻗어있은 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 북서쪽으로 부터 랜드·오브·코퍼(구리가나는 땅)로 갈수 있다고 들은 수많은 호수가 길게 이어져있고 거기에는 이상하고 무서운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킬릴쿠의 어구에 있는 호수옆에서 있는 산둥섬이 밑으로 모든 강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교합장소가 있었던 것 입니다. 이 교합장소에는 카마네루악에서 온 패트너미우트,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온 대오미우트, 북쪽의 얼어붙은 바닷가에 사는 우구힉잘림미우트, 북쪽에서 내려온 하닝가조르미우트,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우리와 같은 형제들인 하토박토르미우트와 팔레러미우트들이 모이곤 했읍니다. 남쪽에서 많은 이 할미우트가 올라왔고 북서쪽에 있는 바다에서는 우리들이 베쟈카—반인반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기도 했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교환할 물건들을 가져 왔읍니다. 베자카는 그들의 땅에서 캐낸 구리를 가져 왔읍니다. 우리들은 담배파이프, 공기등 다른 요리기구를 만들 수 있는 곱돌과 특수한 털가죽 또 나무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 갔읍니다.

북쪽 바다에서 온 이누이트는 아주희귀한 부적과 물개가죽,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이상한 고기짐승의 이빨인 흰뼈를 가져왔고, 동쪽에서 온 대오미우트는 털과, 처칠에 살고 있는 백인들로부터 얻은 물건들을 가져 왔읍니다.

그러나 거기 온 모든사람들이 꼭 물물교환을 하러왔던것은 아니고 동쪽, 서쪽 또는 아주 북쪽에서 온사람들은 나무를 구하러 왔지요. 그 사람들은 전혀 나무를 보지 못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읍니다. 일킬릴쿠에는 멀리 남쪽 어디서 부터인지 많은 나무가 떠내려와서 큰 통나무들이 아킬링네아에 있는 호숫가에 수 없이 떠다녔읍니다.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짧은 여름동안 여기에 와서 나무를 끌어내어 썰매활주부( ), 창, 카약의 뼈대등 다른 많은 귀중한 물건들을 만들었읍니다. 나의 부친 시절에는 눈께미 부탁쳐서 통째로 짤라내곤 했답니다.

이 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북서쪽에서 온 에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누이트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제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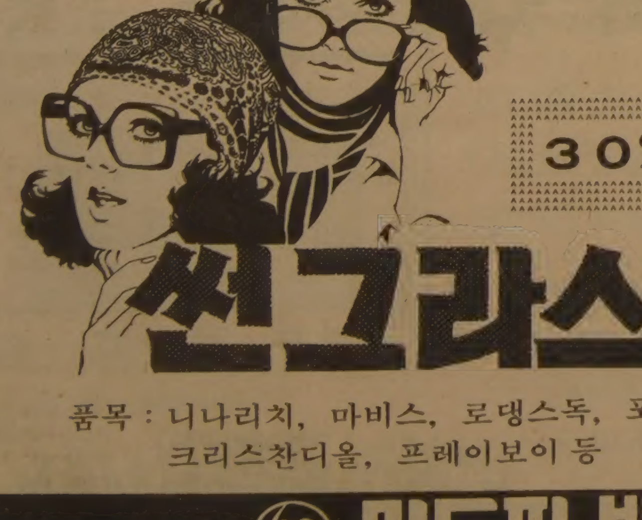
이들 에쟈카는 야만인이었으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이누이트말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많은 단어를 쓰고 어딘가 상당히 다른데가 있었읍니다. 또 그들은 어떤점에서는 인디언인 일킬릴쿠와 같았고 위험스러운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법은 우리의 법과는 달랐읍니다. 그들은 자주 다투었고, 화가났을때에는 서로 창을 꺼내들고 덤비었으며, 종종 우리사람들과 다투었지요.

에쟈카만 제외하고 모든 낯선사람들은 아킬링네아에 올때 호수의 남쪽서 부터 올라왔지요. 에쟈카는 언제나 산북쪽에서 내려왔고, 우리들이 그 교합장소에서 서로 만날때는 항상 "아이! 나는 오른쪽에서 왔소! 산의 오른쪽에서 왔소!" 하고 말했읍니다. 그당시 이것은 아킬링네아 산의 남쪽에서 왔다고 손님들이 보여주는 예의였읍니다마는 위험스러운 에쟈카만은 꼭 북쪽에서 내려왔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것이 나의 부친과 헤좌우한테 들은 이야기중의 몇개입니다.

나는 여러번 그때 내가 어른들처럼 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곤했었지요. 그 때에는 정말로 할일이 많았고, 또 마실을 다닐 동네도 많아서 밤에는 우리들의 이누이트 평원에는 노래와 춤으로 새지않는 밤이 없었읍니다?"

(계 속)


30% off
선그라스
품목 : 니나리치, 마비스, 로댕스독,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 등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THE WORLD BIGGEST SELLING DINNERWARE
Contemporary FINE CHINA by Noritake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不實企業 과감히 整理"

羅재무 金融支援 즉각 中斷

"企業活性化案 검토중"

金利、輸出경쟁국 水準접근

換率、年間 3%抑制線 불구 伸縮운용

羅雄培 재무부장관은 24일 만성적인 부실기업으로서 기업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없다고 관단될때는 이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와 국제수지를 감안, 기업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羅장관은 이날하오 全經聯초청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은행까지 부실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기업주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하지않으면 은행의 금융지원을 즉각 중단함과 아울러 이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羅장관은 이어 국민경제의 건전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전제,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재정금융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금리는 물가상승률、국제금리동향、저축추이등을 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수출경쟁국수준으로 접근시키며 환율은유동화정책을 계속하되 급격한 인상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를 현행수준에서 다소인하하고 환율은 3%로 정해진 연간억제선에 구애되지않고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羅장관은 또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제 ①자기기업에 자기돈을 투자하는것이 이를 달리 활용하는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稅制개편을 검토하고 ②무리한 시설확충및 내실없는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은 주거래은행의 대출및 지급보증심사를 통해 철저히 규제함과 아울러 ③문어발식 비전문업종에로의 기업확산을 방지토록 예방책을 강구한다 ④9·27조치에 의한 비업무용 동산의 처분·계열기업의 정리등은 조속히 완결토록 한다 ⑤증자·손금공제도등 자기자본에 의한 증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나친 배당을 억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충실히하겠다고 말했다。

羅장관은 이밖에도 정책금리와 일반금리의 격차는 계속 축소시켜나가며 복잡한자금의종류금리체계는통합단순화 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國家安保회의 業務 全대통령、報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하오 靑瓦臺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靑文煥常勤위원겸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등으로 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사진>

都市型공장 重課稅안한다

체육·福祉用「非業務토지」도

두부공장등 도시형 공장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가운데 선수전용 체육시설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위한 체육시설용 토지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24일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때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중과해왔으나 두부공장등 주민편익을위한 1백46개업종의 도시형공장은 중과세에서제외、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공장신설이나 증설후 취득하는중기와 차량에대해서도 증설규모가 기존시설이나 면적의20% 이내 또는 1백㎡이내면 기본세율만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재산세를중과해왔으나 공장부속토지라도 공업배치법상의 공장기준 인지면적에따라 업종별로 부속토지면적을 인정、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전은 건축면적 7배까지 획일적으로 중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받는기업또는단체의비업무용토지중 선수체육시설용 토지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위한체육시설 (배구·테니스등) 토지에대해서는 관중석을 포함한 국제규격까지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한지를 시멘트블록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중 소유자가 직접사용하거나 전체사용토지의 50%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빌어쓰는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공한지라도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국제규격까지 제외하며 건축중인토지로서 건축중간 검사를받고 공사를중단한경우와 특수건축물을위해 지질조사설계 기타 건축사업준비에 소요되는토지로 재산세납기 개시일까지 착공하지못한경우,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하지못하는 토지도 제외된다。

내무부의 중과세 환원조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또 지방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도시내의공장은 서울 仁川 水原 安養 議政府 富川등 수도권과 大邱에있는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중과는 기본세율보다 5배를내도록 돼있으나 제외된대상은 취득세3% 등록세 2%재산세0·3%이상의기본세율만 적용된다는것이다。

서울 22개·釜山 4개區域 無許건물 陽性化

政府·民正黨합의

정부와 民正黨은 전국의再開發지역중 서울의 道峰區미아동등 22개구역 1백만坪과 釜山의 門一洞등 4개구역6만6천坪을 해제하여 이지역내의 무허가건물을 陽性化하기로했다。

羅碩昊 民正黨정책위의장은 24일『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따른 無許可건물陽性化대상에서 再開發구역이 제외되어 있으나 民正黨은 가능한한많은무허가건물을 陽性化한다는 방침에따라 정부와 이같이 합의결정했다」고 밝히고『건설부가 곧 陽性化지역을 공고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중 도저히 양성화할수 없는 2백90만坪과 釜山의 5만8천坪에 대해서는 별도의 移住대책을 세워 서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民正黨이 합의한 再開發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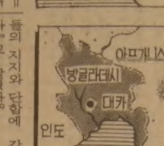
◇서울 (22개지역、괄호안은 면적、단위㎡) ▲鍾路區‖樓上洞1번지일대(3만4천) 三淸洞山2의10대(2만3천) 松月洞2번지(6천8백) ▲龍山區‖西氷庫洞24의39(7천2백) ▲城東區‖沙斤洞309(2만) ▲東大門區‖新設洞92(6천) ▲道峰區‖彌阿洞860(7천) 彌阿6지구791(8만1천) 上溪洞山80(1만) 中溪洞288(1만4천) 中溪洞3지구426(1만5천) ▲恩平區‖水色洞150(11만7천) 鷹岩洞397(12만5천) ▲西大門區‖弘濟洞40(9만4천) 弘濟7지구7(1만9천) 北加佐洞100(1만9천) ▲麻浦區‖上岩洞2의21(5만4천) ▲江西區‖新月洞169(8만2천) 新井1지구31(8만3천) 新井2지구414(5만6천) ▲永登浦區‖堂山1지구1번지(8천) ▲銅雀區‖舍堂1지구山11(4만5천)

◇釜山(4개구역) ▲凡1洞1지구(4만) ▲佐川2洞(1만4천) ▲新仙1洞(2만3천) ▲東光洞(1만4천)

과테말라·방國서 軍部쿠데타

과테말라 極右장교 主動…評議會 구성

방글라데시 陸參總長、戒嚴선포·全權장악



【과테말라시티23日UPI聯】과테말라의 極右민주해방운동 (MLN)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년장교운동의 우익장교들이 23일軍部쿠데타를 일으켜 로메오·루카스·가르시아 대통령정부를 전복하고 전권을장악、군사평의회를 구성했다。

과테말라 라디오방송은 과테말라군이『가르시아 대통령을 전복하고 전국을 완전장악했으며 청년장교단은 국민들의 지지와 단합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라디오방송은 이보다앞서 군부 코뮈니케를보도하고 軍은『부패한 소수집권층으로 부터 국가를 구출하기 위해 정부를 접수했으며 군사평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소식통은『실각한로메오·루카스·가르시아 대통령은 대통령궁으로부터 空港으로 연행되었으며 곧 국외추방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데타軍대변인은 가르시아 대통령을 대신할 통치기구로 5人군사평의회를 구성했으며 이군사평의회는 지난 1974년 기독교민주당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에프레인·리오스·몬트 퇴역장군이 이끌것이라고말했다。

게바라 대통령당선자는 오는7월 새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극우MLN과 좌익게릴라들은 지난7일의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탄한바있다。

가르시아 亡命길에

【과테말라시티23日聯】 군소장장교들의 무혈쿠데타로 실각한 로메오·루카스·가르시아 과테말라 대통령이 수도 과테말라시티를떠나 망명길에 올랐다고 대통령궁소식통들이 23일 밝혔다。

【뉴델리24日로이터AP=聯】 방글라데시 육군참모총장 호사인·모하메드·에르샤드중장(52)이 24일 새벽 (한국시간 정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압두스·사타르 대통령(76)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인도의 PTI 통신과 뉴델리 방송이24일 보도했다。

이보도들은 또 에르샤드장군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위기의 극복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작년5월30일 지아울·라만 대통령이 반란군에 피살된후 총선에서 사타르 전 부통령이 당선되어 집권 했으나 그동안 에르샤드장군을 중심으로한 군부와심각한 마찰과 불화를 빚어왔다。

한편 미국무성은 이날 방글라데시 쿠데타에관해 성명을발표、합헌정부가 전복된데 유감의뜻을 표하면서방글라데시에조속히헌정질서가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말했다。

「新政社會黨」으로

民社·新政 合黨 총재에 高貞勳씨 선임

民社黨과 新政黨은 24일하오「新政社會黨」으로 合黨을 선언하고 총재에 高貞勳民社黨당수、黨의장에 金甲洙新政黨총재、사무총장에 李沅衡의원 (新政黨사무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民社黨과 新政黨은 이날白璜基의원등7명 (民社黨측)과 李沅衡의원등 7명 (新政黨측)으로「新政·民主社會黨합당수권대표자회의」를열고 이같이 결정한후 黨憲과 綱領을 채택했으며 黨舍는현民社黨의 당사를 사용키로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合黨선언문에서『新政黨과民主社會黨은 민족의자유와 독립을위해 자기희생을 아끼지않았던 독립정신의 고귀한정신을 이어받아 이나라의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몸바쳐온 선구적 민주 사회주의자들의 참뜻을 본받으며 인간의존엄과 가치가 실질적으로 존중되는 민주·복지·정의사회 실현을 사명으로 新政社會黨이란 黨名으로 통합하였음을선언한다』고 밝혔다。

新政社會黨은 앞으로 지구당위원장은 民社、新政지구당위원장중 지난해 3·25總選당시의 高得票者가맡고 당무위원이나 기타黨職은 兩黨이 均等하게 나누기로했다。

新政社會黨은 25일상오 중앙선관위에 合黨등록을할 예정인데 이에따라 의석3개를 가진 院內제4黨이되어 정치자금의 國庫보조등에서 民權黨을누르고 많은혜택을 보게되었다。

新政社會黨은 정당법에따라 앞으로 3개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가진후 다시 3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갖게된다

◇과테말라 쿠데타主動者 메르난도·가르시아 장군이 이끄는 과테말라 우익정부전복에 뒤이어 에프라인·리오스·몬트장군㊥이 23일 과테말라·시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혁명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고있다。【과테말라시티23日AP電送=聯合】

對南선동 激烈

北傀、美文化院사건 平壤 學生集會열고

북괴는 최근 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불순분자들의 이같은 범죄행위를『애국적 행동』운운으로 비호하면서 연일 對南선동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23일에는 平壤에서 대규모 학생선동집회를 열고 韓美측에 의해 마치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는것처럼 조모라、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한국사회의혼란유발을 목적으로한 격렬한 對南선동을 자행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聯】

李大燁의원 脫黨

新政黨부총재인 李大燁의원은 24일하오 新正·民社黨合黨에 반대하는 성명을내고 新政黨을 탈당했다。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부실보상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社会漫評

또 다시…

地平線

노름을 잘할수록 사람은 나빠지는 모양이다。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일류회사직원이 공금7억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는가 하면 국내에선 지방행정기관의 과장급공무원이 여관을 돌며 삼봉도박판을벌이다 파면됐다。▼동양화(?)를 감상안해본사람이야 없겠지만 요즘은 도가 지나쳐 말썽이다。부인네들이 모여 계를할때도 화투짝이 안나오는 경우는드물고、주차장 한쪽에 웅크려앉아 노름에 열을 올리는사람이 있는가하면 일부 학생까지 포커를 모르면 바보취급을 받으니 한심할정도뿐이아니다。물론 위락으로끝나는 심심풀이가 대부분이지만、큰돈놓전 도박판도 있다。엊그제는 주부도박단 6개파60여명이 적발돼 관심을 끌었다。그런일면외에 사행심을 노리는 복권、경마、제비뽑기도 성행하고 있으니 도박의 한계 역시 모호해진다。▼또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카지노가 엄연히 문을 열고있어 앞뒤가 맞지도 않는것 같다。▼모나코나 라스베이가스를 안쳐들더라도 도박이 없는 나라를찾기는 힘들다。문화인들가운데 도박을 즐기는 사람도 적지않다。죄와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나 모차르트가 도박광이라는얘기는 유명하거니와 수학에서쓰는 확률론도 알고보면 파스칼이루레트를 하다 발전한 부산물이다。도박의 기원은 유사이전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시저전기나 신약성서·중국의史記에도 도박얘기가나온다。골패 또는 주사위로 하는 노름과 마작이 있는가하면 손쉬운 화투나 카드놀이외에 경마、競輪(일본과덴마크)、도그레이스(香港)에 돈을 걸기도하고 슬로트 머신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가볍게 가정에서 심심풀이로 손에잡는 花鬪는 지금은 농촌에서도 고스톱을 모르는이가 없을정도다。옛날엔 남자들이 즐기던오락으로 賭錢이 있었다。윷놋자의一을따라지、五를 진주、六을서시、七을고비、八을 덜 머리、九를 가보、十을무대라고했다。지금도 따라지니 가보니하는것이 이때 쓰던 말들이다。근래 시중에 나돌고있는 화투는 花鳥風月48장을 배합한것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듯하다。▼노름이라기보다는 친목을 위한여흥이 대부분이어서 아주 없앨수도 없지만 시골에서 화투치기가 유행이고 도시서는 포커가 성행한는것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닌듯하다。그 싱그러운 봄철에 야외로나가 맑은공기를 듬뿍마시고 대자연을 벗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화투한는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도박을 즐기면 몸에도 나쁘지만 결국은 敗家망신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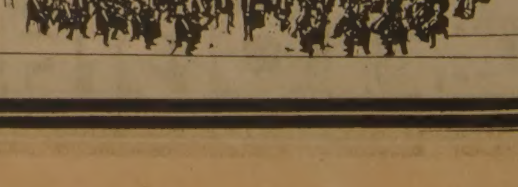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問題된 코넬·애그로프롬社 "앞으로 入札서 제외"

"코넬社서 日本米도입 제동 비싼값에 30萬톤 추가導入"

국회經科委의 外米도입진상규명 9人小委는 24일 제4차 회의를 續開, 쌀도입에 얽힌경위와 진상을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李炯培 洪思德(이상 民韓) 金鍾河(국민) 趙舜衡의원(議政)등 야당 의원들은 『앞으로 있을 공개입찰에서 코넬社와 濠貿米를 들여온 애그로 프롬社를 제외시킬것』을 요구했고 金周浩 조달청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고 답변, 이들 회사들을 제외시킬뜻을 示唆했다.

金조달청장 9人小委 4次회의 답변

한편 9人小委는 26일 5차회의때 申秉鉉전부총리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로 했다.

金周浩조달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70년대 對韓쌀수출을 독점해온 코넬社가 美의회內 지지세력을 동원, 유리한 조건의 日本米도입에 制動을 걸려고했기때문에 당시 購買價보다 톤당 9달러10센트씩 비싼가격으로 30萬톤을 코넬社로부터 추가도입, 결과적으로 이과정에서 2백70萬달러를 초과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넬社측은 지난 16일 美下院청문회에서 만일 韓國이 계속해서 다른 회사로부터 쌀을 사들일경우 對韓借款과 韓·美 군사관계에 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바 있다』고 말했다.

金청장은 코넬社가 이처럼 횡포를 부릴수 있었던 것은 日本米를 도입할때 美國등 쌀 수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때문이라면서 『지난81년1월12일 某 美國下院의원은 申秉鉉부총리를방문, 당시 구매가격보다 30달러이상 비싼가격으로 코넬社로부터 日本米를 구매치 않을 경우 日本米의 對韓수출을 철회키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비추기까지 했다』고말했다.

金청장은 코넬社로부터 外米를 고가로 도입한 과정과 관련, ▲조달청이 81년 1월23일 퍼미社와 톤當4백49달러90센트로 南部米 20萬톤과 加洲米 4萬톤을 구매계약하자 코넬社측은 의회지지세력을 동원, 南部米 10萬톤과 加洲米 30萬톤을 추가 구매치 않을경우 日本米의 對韓수출에 제동을 걸려는 책동을 해왔고 ▲81년1월초 上·下兩院 의원 20여명은 美國이 日本米 1백萬톤의 對韓수출을 양해한후 韓國측이 美國쌀구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81년2월10일 美國下院은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고 ▲81년 1월12일 某美國下院의원이 申부총리를 방문, 美國南部米를 톤당 4백80달러 이상으로 구매할것을 주장했으며 ▲여의치 않으면 日本米의 對韓수출을 철회키위한 청문회개최의사를 표명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퍼미社로부터 81년12월31일 도입계약한 4萬톤이 당시 싯가보다 톤당 1백달러나 비싼 부분에 대해 『이는 신규계약한 것이 아니라 81년1월23일 구매계약한 20萬톤중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金청장은 『퍼미社와 계약된 南部米1만2천톤의 도입시 침수된쌀 1천3백13톤에 대해서는 퍼미社로부터 4억2천만원을 보상받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날 9人小委 의원들은 ▲정부가 코넬社로부터 南部米 10萬톤과 加洲米30萬톤을 추가 구매한 이유와 加洲米의 경우 톤당9달러10센트씩 고가로 구매한 이유▲퍼미社와 美南部米 20萬톤을 구매계약한후 4萬톤을 2차로 신규계약하면서 당시 싯가보다 톤당 1백달러씩이나 비싼 1차계약시의 가격을 적용한 이유▲퍼미社와 4萬톤을 2차계약하면서 조달청장이 美國대사관에 공식설명을 준 사실의 有無▲애그로프롬社와 伊太利産 白米의 규격미달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지않은 이유▲한국정부 관리에 대한 賄賂주장에 관하여 그 근거별로 정부의 결백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느냐고 물었다.

3黨代表회담 내달初갖기로

李民正대표 밝혀

【束草】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은 24일 앞으로 각정당간의 협조방안과 임시국회소집등을 논의하기위해 4월초에 3黨대표회담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江原道의 民正黨지구당의 현지黨員교육을 돌아보기 위해 이곳에 온 李대표는 이날 기자들과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번 代表회담에서는 民正黨의 중앙소집교육과 지방현지교육을 他黨에 공개하고 강사를 他黨에 소개해주는등 각당의 黨員교육에대한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적不況에 처 정부의 實行예산중 주요사업을중지하지않는범위내에서 修正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위해 정기국회전에 최소한 한번이상의 임시국회를소집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綜合상사 輸出활기

2월에 7億弗 전체의 44·2%차지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綜合商社들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있다.

24일 관계당국이 집계한 2월중 종합상사들 수출실적을 보면 現代綜合商事가 1억7천9백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三星物産이 1억1천만달러, 大宇가 1억5백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2월중 10대종합상사의 총수출실적은 7억5백만달러로 전체수출실적 15억9천5백만달러의 4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1년동안의 수출실적가운데 종합상사가 차지한 비중인 43·2%보다 높은것이다.

한편 1월분 실적을 합친 올들어 2월말 현재 종합상사별 수출실적은 역시 現代綜合商事가 3억4천6백만달러로 가장 많은데 이는 작년 같은기간의 실적보다 2백17·4%나 증가한것이다.

다음으로는 大宇가 2억1천만달러, 三星物産이 1억9천3백만달러, 國際商事가 1억3천8백만달러, 雙龍이 1억3천3백만달러의 실적을 나타냈다.

올들어 수출실적이 작년동기에 비해 늘어난 비율로 보면 現代綜合商事에 이어 鮮京이 37·1%, 高麗貿易이 26·3%, 雙龍이 19·8%, 國際商事가 17·9%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종합상사들의 수출실적 평균증가율 (25·5%)이 전체증가율 (7·7%)보다 높았다.

社說

勞使協約의 法廷싸움
—30億원 택시入金말썽의 問題點들

서울시내 택시 운전기사들이 25~30억원의 부당이익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국일보24일字10면). 요즘 워낙에 「億臺」「10億臺」 사건이 흔하다 보니, 25~30억원이라고 해서, 놀라 자빠질 것은 없으나, 이 소송사건은 좀 더 찬찬히 뜯어 볼만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소송의 발단은 재작년 5월 택시사업조합과 노조간에 맺은 단체협약이다. 국가보위법에 따라 서울시가 조정한 협약은 택시 1대당 하루 40ℓ의 기름을 회사가 공급하며, 하루 입금액은 5만7천원으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택시조합측은 기름 값이 올랐다고 기름의 공급량을 줄이거나 입금을 올려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입금액 5만7천원은 하나의 잠정기준일뿐 올려 책정할수도 있다고 해석했고, 이 해석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측의 訴願은 노동청, 협약위반을 이유로 한 쟁의발생신고는 서울시에 의하여 각각 기각됐다.

더 이상 다툴 방도가 없어진 노조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금 걸려 있는 소송은 어떤 운전기사 한 사람의 명의로, 그의 소속 회사가 더 받아들인 13만8천4백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다. 작년 2월에 제소한 이 사건은 1~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 그 판결결과는 서울시내 2백14개 택시회사와 2만여 운전기사에게 관계된다.

이상의 경위에서 주목할 것은,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기능을 가진 노동행정의 자세요, 이런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수밖에 없었다는 그 자체다.

흔히 듣는 대로, 勞使간의 대화와 협조는 산업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불가결하다. 이런 명제 아래 우리나라 근로자는 어느정도 勞動3權의 제약을 감수하고 있다.

이럴경우, 노동행정의 구실은 참으로 요긴한 것이다. 근로자의 처지에서는 그들의 권리일부를 노동행정에 信託한것이니, 행정기능을 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을 강조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행정은 스스로도 勞使간의 평화 유지뿐 아니라, 弱者일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주된 책무로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노동행정의 기능이 제대로 구실하고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무엇보다도 직권조정한 협약내용을 조정기관 스스로가 느슨하게 해석하여, 그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것이다. 그것은 조정 결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국가보위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할수가 있다. 하지만 노동쟁의 조정법이 규정한 알선·조정·중재·긴급조정 제도는 그운영 여하에 따라 이번 택시입금 시비와같은 헛점을 낳을수가 있다. 노동행정이나, 조정기관이 조정절차의 공정과, 조정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노동법규정들이 근로자의 권리만 제약하는 결과가 되기는, 국가보위법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바람직 하기는, 勞使간의利害는 대화로 조절되고, 異見은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테두리안에서 조정되는 것이다. 노동법의 그 많은 규정과, 部로 승격된 노동행정은 이를 위해서있다. 勞使간의 일을, 일반의 계약관계나 다름없이 민사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면, 그것은 노동행정의 부재를 말함이라 해서 지나칠것이 없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소송은 1~2심을 마치는데 1년이상이 걸렸다. 단체협약 기간이 끝난 지금, 다시 몇달이 걸려야 확정판결이 날판인데, 그때 원고승소판결이 난다해도, 다시 2만여명의 운전기사가 떼지어 소송을 해야 이익금을 돌려 받게된다. 어느 모로 생각해도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다.

우선은 勞使관계가, 勞使관계 본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동행정의 기능이 올바로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번지는 勞使관계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는, 勞使관계의 특수성에 알맞는 특별절차나, 전문법원·전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할것이다.

巨大化하는 敎會
—宗敎의 商業化경향을 憂慮함

70년대의 유행어였던 「고도성장」이 요즈음 종교계의 한쪽에서도 관심거리가 되고있다. 인간의 정신적구원을 사명으로 하는 종교계 일부에서의 관심이란 눈에 띄고, 손으로 만져볼수 있는 것의 고도성장을 말하는것이다.

간단한 예가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교회건축의 대형화다. 일부 교회건물의 대형화가 어느정도인가는 근래 세상의 눈을 모을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것같다.

연건평 수천평에서 1만평짜리도 있고, 가장 규모가 큰 한 교회는 공사비만도 1백억원이나 된다고 알려졌다.

지난7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교회건물의 매머드화는 동시에 교회재정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할수있다. 서울의 10대 교회에서는 한주에 헌금이 1억에서 적게는 4백만원선까지 들어오고있다는 종교전문지의 계산도 있었다.

거대해지는 교회건물은 이렇게 방대해진 재정에 ②나타난 구체적 결과다.

교회건물의 대형화는 그자체가 좋건 나쁘건 어떤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1만명에서 수천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기구하던 때와는 판이한 새로운 종교적의미를 지닌다고해야 하겠다.

피가 통하는 사람끼리의 체온의 접촉이라는 이웃단이나 중간집단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대집단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거대한 공공행정조직이나 거대산업처럼 거대화한 교회가 이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맡을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땅과 대가족을 떠나 대도시에서 외돌토리처럼 헤엄치고있는 오늘날의 인간들에게 이런 거대교회가 어떤 빛을 줄수있을것인지 기대와함께 걱정도 앞서는것을 숨길것은 없다고 본다.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교세확장만을 생각하고 겉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런 주도권다툼이 일어나는것도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가아닐까 생각된다.

교회의 대형화에다 댄다면 일부 종교계의 상업화경향은 직접적인 위기의 조짐처럼 보인다.

교회뿐만 아니라 절을 사고 판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볼수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종교전문지에 버젓이 상품광고처럼 표면화하고, 또한 부동산거래처럼 흔해지고있는데에 문제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매매란 있을수 없다』는 신학이론상의 비판도있다. 신학을모르는 속세의 사람이라도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겠다는 성직자들이 교회와 절을 팔아넘긴다는것이 무엇을 뜻한다는것은 짐작할수 있다.

무허가 신학교가 난립해서 27개교가 당국에의해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지는것도 이런상업화와 무관한것같지 않다.

교회와 절을 뒷받침하는 헌금과 시주돈을 팔아넘기는 일종의 사업체 매매와 다를바 없다는 짐작이다.

교회의 거대화와 이런 일부종교계의 상업화가 직접 관련된다고는 말할수없지만 우리는 풍요한사회의 종교가 어때야 될것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몇십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교회를 짓는것도 좋지만, 큰 돈을 또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 종교본연의 정신을 더욱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고도성장하면 교회도 고도성장하는게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일의 靈的고도성장을 위한 밑거름일때에만 정당화될수 있는 것이다. 마치 주식회사를 팔아넘기듯 교회와 절을 사고파는 일은 종교계 자신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비판을 면치못할것이다.

그런 비판은 타락한 속세와 인간들는것이다. 매머드교회가 의지가지 없는 노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엄청난 헌금과 시주돈이 들어오는 종교기관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그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

『종교란 가난해야만 진정으로 가난한사람과 함께 할수있다』는 한 성직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같다.

政黨史 새記錄 「保·革결합」

民社·新政 合黨…「新政社會黨」출범

群小정당의 「맏이」로 院內 제4黨부상

異質接木… 조직·路線둘러싼 難題 산적

民社黨과 新政黨은 23、24일 각각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당史上 유례없는 保守정당과 革新정당의 合黨이란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11代總選의 得票率과 院內議席을 합친 黨勢에서 제5黨인 新政黨과 6黨인 民社黨은 合黨으로 黨勢를倍加、民權黨을 제치고 4黨으로 오르게되었다. 그만큼 조직과 기능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정당보조금지급률이 伸張돼 당활동의 활력소인 재원의 利를 보게됐다.

그러나 兩黨의 合黨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新政黨의 李大燁의원이 脫黨하고 일부 지구당위원장들이 반발하는 後遺症을 겪어야만했다. 앞으로도 통합黨은 조직、노선을 둘러싸고 수습、조정해야될 적지않은 難題를 안고있다.

「新政社會黨」이라는 새黨名으로 새출발하는 이번 合黨은 保·革의 결합이란 異質的인 정당간의 특이한 接木이라고 할수있다.

두당이 지난해부터 통합의 소리만 높인채 지난3개월동안 原點을 맴돈 가장큰 이유가 바로 이같은 異質屬性으로 빚어진 黨內반발때문이었다.

이런 반발을 民社黨의 高貞勳당수는 『정당은 보수와 진보의 移流현상을 통해 발전하며 날때부터 보수、혁신이 따로 없다』고 무마시켰고 그동안 革新정당과의 合作은 어림없는 얘기라고 펄쩍뛰던 金甲洙新政黨총재는 역시 『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커나가야한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우리政黨史에선 혁신정당간의 離合集散이나 혁신인물의 보수정당참여는 있었으나 보수와 혁신의 정당통합은 없었다.

그러면 두당이 새로운 기록을 낳고 합당하게된 誘引力은 무엇인가. 두당의 통합과정에서 나온 가장 두드러진 이유와 名分은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各國 민주사회주의정당들과 적극적으로 交流·협력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系정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는 西歐등 국제사회에서、또 제3세계、非同盟圈에서 현실외교를 하려면 현재의 단2席의 왜소한 民社黨만으로는 도저히 체면이 서지않는만큼 보다 정당다운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는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같다.

그동안 여러차례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이나 西歐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민주사회주의 계열정당과 접촉을해온高당수는『그들과 만났을때 의석이 얼마나되느냐는질문을 받을때가 가장 괴로왔다』면서 『최소한 4~5석만 되어도…』한다는 아쉬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통합추진과정에서 兩黨은 저마다 對等合黨원칙아래 주도권장악을 싸고 보이지않는 神經戰을 벌여왔다. 결국 줄다리기끝에 사실상 黨職을 비슷하게 按配하는線에서 매듭이 됐으나 새로운 「新政社會黨」의 컬러는 革新정당이될것으로 낙착됐다.

新정당은 對內的으로는 保—革의 통합으로 黨勢가 배가된 새정당의 모습갖지만 對外的으로는 바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 것이다. 民社黨은 벌써부터 『新政社會黨』의 黨名을 대외적으로는 民主社會黨으로하고 『社會黨』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民社黨은 반발의 불씨를 쉽사리 끌수 있었던데 비해 新政黨은 마지막 전당대회까지 『社會主義』라는 말에 대해 『灰色』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반발이 컸다. 이러한 반발을 金甲洙총재는 『활동할수 있는 사회주의라는게 별게 아니다』라며 무마시키기도 했다. 群小정당간의 통합얘기는 작년 總選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봄부터 있었다.

작년 3월말 高貞勳民社黨당수는 金義澤民權黨총재、金甲洙新政黨총재를 만나 『대등단합하자』며 통합을 제의했다.

그뒤 4월들어선 新政黨이 선수를 써 군소정당통합작업을 벌이면서 民權、新政、民社、民農、安民黨등 5黨사무총장이、7월엔 民權을 제외한 群小4黨이 대표회담을 벌였는데 그당시 金甲洙新政총재는 民社黨측에 보수、혁신융합을 위해 통합당을 「社會正義黨」으로 하자는등 3개방안을 제시했으나 高貞勳民社黨首가 黨名을 포기할수 없다고 버텨 무산됐다.

작년여름이후 쏙 들어갔던 통합얘기는 정기국회가 끝날무렵인 12월중순 民社黨의 白璨基부당수와 新政黨의 李沅衡사무총장등이 접촉하면서 합당문제가 급진전되기시작했다. 금년 1월들어선 구체적인 통합절차까지 논의돼 1월중순 合黨발표설이 나왔고 이에 반발해 新政黨에선 현직간부등 10명이 집단脫黨하는 소동을 치렀다. 이파동끝에 新政黨은 2월1일 中央常委를 열고 贊反激論끝에 合黨여부를 표결에 붙였으나 19대18、1표차이로 부결됐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陣痛을 겪어온 新政社會黨은 李大燁의원의 脫黨으로 국회의원이 3席에 그치는 線에서 통합을 이루게됐다.

이로써 새黨은 비록의석수는 적지만 밖으로는 각국민주사회주의정당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할수있게됐으며 안으로는 民正、民韓、국민에이어 제4黨으로 浮上하는 一位置의 변화를 일으켰다. 【趙聖鎬기자】

"레이건의 對韓觀은 확고 한국經濟성장 세계平和에 도움"

알렌 레이건前特補

리처드·알렌前레이건대통령安保담당특별보좌관은 24일 『레이건美 대통령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우방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렌前보좌관은이날全經聯이 마련한 특별초청강연회에서 「레이건행정부의 對外정책과 韓美관계」라는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레이건대통령의역사적취임초기에 全斗煥대통령의 訪美는 한국이 자유세계의 평화와안보에 중요한전략적요충지임을인식케한예로볼수있다』고말했다.

알렌씨는 『레이건행정부는 한국에서는 경제력을높여 한국이 미래의 安保기틀을 튼튼히 하도록하는 중요한결정도 내렸다』고 말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은세계평화유지에 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國防內務保社 3개常委 소집

3黨總務합의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24일상오 모임을갖고 오는4월2일 국회保社委를 소집, 정부로부터 食品위생문제를 포함한 夏期방역대책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이기로한데 이어 오는30·31일 양일간 열리는 韓美年例安保협의회가 끝난후 國防委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했다.

3黨총무들은 또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및 청소년범죄등 전반적 치안대책을 따지기위해 內務委를 소집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放火사건이 해결되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후 추후 결정키로했다.

이날회담은 또 정부의 糧穀보관상태및 糧穀米대책을 따지기 위해 農水産委를 소집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으나 시기는 經科委의 外米도입진상규명9人小委의 활동이 끝난후 소집키로했다.

PFA 한국委員會 理事5명 추가選任

아시아新聞財團(PFA) 韓國위원회(회장 張康在)는 23일 理事會를 열고 李鍾基中央日報사장、鄭九鎬京鄕新聞사장、河鍾培釜山MBC사장、金宗太光州日報사장、安世永大田日報사장을 理事로 추가선임하고 羅炳度每日經濟新聞사장을 監事로 추가 선임했다.

보너스稅金 줄어든다

稅法개정으로 부과方法 바뀌어

지난연말의 稅法개정에서 보너스에대한 과세방법이바뀜에따라금년부터 연초에 받는 첫보너스는 작년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되지만 연말에 가면 예년보다 세금을 더 적게내며 결국은 보너스에대한 세금이 경감된다.

과거 보너스에대한 과세방법은 정액근로소득공제와 상여금특별공제를합한 금액(최고한도1백6만원)을 공제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연초지급분부터 비과세함으로써 연초 보너스는 세금을 적게내나 연말지급분은 많은세금을 내게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과세방법을 체감식정률 공제제도로 바꿔 연간 균등하게 과세함에따라 연초분이나 연말지급분이 모두 같은 세금을 내게된다.

政局往來

"과거와 다른「별난 與黨」맛보게될것"

◆ 대통령의民泊은 牧民자세보인것

江原道 지구당 현지 교육을점검중인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은 23일에 이어 24일 東海및 江陵지구당을 차례로 巡訪, 활동당원들을격려하고 지방黨職者와대화를나누었다.

李대표는 東海지구당 (위원장 金正男의원)의 현지교육장에서 『오늘 여러분은 과거 與黨과는 달리 별난與黨을 처음 맛보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民正黨은 과거 執權黨과는 달리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모든것을 바치는 黨이기때문』이라고 설명.

그는 또 江陵지구당 (위원장 李範俊의원) 당직자들과 간담회석상에서 지난번 全斗煥 대통령의 民泊을 가리켜 『국민의 가슴속에 뛰어들어 국민의 고동소리를 듣기위한 牧民의 자세를보인것』이라면서 『채찍으로 양떼를 몰듯이 지시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다른자세』라고 찬양했다. 【江陵】

◆20분만에 논쟁없이 合黨에合意

新政社會黨이란 이름으로 合黨을 선언한 24일하오의 「新政·民社黨합당推權대표회의」는 20분만에 아무 논쟁없이 合黨절차를 마쳤다.

양측대표 각7명이 마주보고앉아 白璨基 民社黨부당수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진행된 이날 대표자회의는 合黨결의, 綱領·黨憲채택, 총재·당의장지명등의 順으로 一瀉千里로 진행됐는데 합당선언문낭독에 이어 合黨을 정식선포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자 高貞勳 民社黨당수와 金甲洙 新政黨 총재는 일어나 만면에 웃음을띠며 악수를 나누었다.

合黨절차가 끝나자 새黨의총재로 추대된 高貞勳 民社黨당수는 『新政黨 여러분들이 殺身成仁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추켜올렸고, 黨의장으로 추대된 金甲洙 新政黨총재는 『우여곡절끝에 한식구가됐으니 합심협력하자』고 인사.

◆合黨의결에 脫黨·聲討등風波일어

新政黨은 24일 중앙常委에서 民社黨과의 合黨을 놓고 격론을 벌인데 이어 임시전당대회에서 合黨을 의결했으나 合黨선언직후 李大燁의원이 脫黨을 電擊선언해한바탕소동.

이날 하오1시께 金甲洙총재가 合黨결의를 선포한 직후 부총재인 李의원이 신상발언을얻어 『나는 오늘 비로소 설땅을 찾았다. 나는 新政黨이 民社黨을 흡수、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오늘의 결과는 民社黨당세만 키워주었다』면서 『가슴아프고 눈물이 날 지경이나 脫黨하겠다』고 선언하고는 미리준비한 脫黨屆를 金총재에게 제출. 이어퇴장하는 李의원을 만류하던 金총재에게 李의원이 한마디 더하고 나가려하자 『여기가 무대야』라고 고함치며 怒氣를 띠었다. 新門路당사옆불고기집인 국일회관에서 열린 이날 임시전당대회에 앞서 개최된 중앙常委에선 대의원가운데 『다해놓고 연극하자는거 아니냐』는등 성토가 나오기도.

◆회의결과 또한차례 엇갈린발표

24일상오10시부터 열린 국회經科委外米도입진상규명 小委4차회의는 7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與野간에 상반된 2重발표로 또한차례 混線을 빚었다.

이날 신상식 위원장이 『올해 입찰 37만톤의 구매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한데 대해 야당측간사인 李炯培의원 (民韓)은 『절대로 도입해선 안된다는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애그로프롬社와 코넬社는 입찰에서제외시키기로 조달청장이 확약했다』고 修正발표.

이에 申위원장이 『조달청장이 그렇게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李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안다. 조달청장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당황한 申위원장은 『조달청장이 李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겠다고 한것이지 확약은 하지않았다』고 끝까지 否認하기도.

봄철스페샬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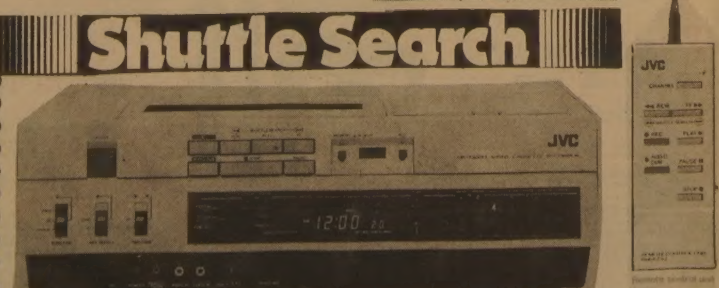
ZENITH

REG. $1495 SPEC. $1095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 (VHS) 입니다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HEAD 4개
*REMOTE CONTROL 포함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겁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STEREO CO.

"내 발등의 불 급하다" 회원국 不協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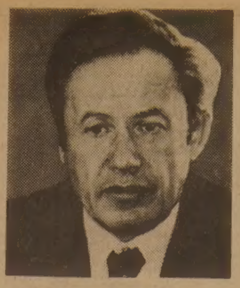
25돌맞는 EEC

經濟후퇴·蘇聯위협등 당면한 문제에도 손발 안맞은채 말로만 "共同대처하자"

歐洲의 단일通貨制度도 英반대로 물거품되고

國家主義 팽배…結束퇴색

豫算분담 줄이려 안간힘



◇가스톤·손 EEC의장

유럽경제공동체(EEC)가 25일로 창설25주년을 맞는다. 이날 브뤼셀의 EEC본부에서는 10개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가운데 정상회담을 갖는다.

國際焦點

2주전 회원국대표들이 합의한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EEC가 당면한 최대과제인 회원국별 예산분담금 문제는 거론치않기로했다.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예각적으로 대립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회원국정상들이 모여서조차 EEC의 핵심적인문제를 논의하지 못하는 EEC가 되고만것이다. 이는 유럽의 단합과 결속을 통해 유럽의 번영을 이룩한다는 당초 설립목적이 국가주의에의해 심각하게 퇴색되어 있음을 웅변으로말해준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誌 최근호가 비교하고있듯이 EEC는「의식불명상태」에서 25주년을 맞고있는지 모른다.

EEC는 2차세계대전후 유럽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가져야만 전쟁을 막을수있다고믿은 소수 이상주의자들의 이념의 소산. 유럽대륙을 어느 민족이 지배하느냐를 놓고 끈질긴 대결을벌여온 유럽에서야 전쟁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볼때 이같은논리의 정확성은 일단입증된 셈이다.

EEC의 창립회원국은 西獨,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등 6개국이었다. 영국과 덴마크, 에이레가 73년에 가입했고, 지난해 그리스가 열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만6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브뤼셀의 EEC본부에는 의회·재판소및회원국 각료위원회등의 기구도 두고있다.

EEC의 결정은 2억7천만 유럽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하에 소련세력에 대항하는 제3의 초강대세력으로 등장했다.

EEC는 비록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對美자세는 엄격하게 독립적이어서 미국에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있다. EEC의 根幹은 회원국 상호간에 교역되는 상품에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않는 자유무역제도.

그러나 회원국간에 常存하는 국가주의로인해 EEC의 기능은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79년 EEC는 통화의 등락을 통제하기위해 구주통화제도를 채택했으나 영국이 이에반발, 단일구주통화의 理想은 아직도 실현이 요원한 꿈이 되고있다.

이같은 회원국사이의 지나친 이해상충은 EEC를 약화시킴은 물론 EEC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유발케하고있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은 그들이 집권하면 영국의 EEC탈퇴를 결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그리스정부는 회원국조건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EC안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西獨은 갈수록 EEC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은 EEC의 공동농업정책의 수정과 연간20억달러에 달하는 西獨의 對EEC예산분담금을 삭감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유럽국가들은 국내적으로는 경제후퇴와, 밖으로는 소련의 군사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도전은 EEC의 결속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예산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으로 공공지출을 줄이기위해 안간힘을 하고있기 때문이지만 1957년 창설당시의 협상내용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당시 서독은 프랑스에 농업정책에서 혜택을 주는대신 자신은 산업분야의 자유교역에서 혜택을 누리고자했다.

73년 영국이 가입했을때 EEC내의 교역은 신통치않았으며,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산업분야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은 감소했다.

농업정책을 위해 EEC가 치르게될 재정적 희생이 크게줄것이라던 기대도 빗나갔다.

EEC의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의 수백만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산물의 자유교역으로인해 일국농민의 이익이 다른나라농민의 이익을 위협한결과최근 프랑스 포도주생산자들의 폭동과 같은 사태를 빚었다.

EEC회원국 각료들은 이란사태, 아프간사태, 폴란드사태등과 관련, 통일된 정책을 채택했으나 결과는 不協和音으로 끝나곤 했다.

국가이익을 좇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어떠한 규정도없다. 한 예로 최근 EEC는 日本車 자동차 수입문제에관련, 단일정책을 마련코자 했으나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자국쿼터를 유지하고자 하는 프랑스및 이탈리아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스의 안드레아스·파판드루수상은 소련의 폴란드사태 개입문제를 비난하는 EEC공동성명에 서명한 부수상을 해임시키기도 했다.

EEC를 살리는 길은 공동시장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EEC의 모체인 57년의 로마조약에는 지역내에서의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EEC에 모든 종류의 카르텔을 파괴할 힘을 부여하는 야심적이고 장기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조항은 한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그때문에 영국의 자동차값이 벨기에서보다 40%가 싸고, 유럽의 비행기삯이 미국보다 배나 비싸며 EEC내에서 은행및 보험산업의 상호경쟁이 안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협화음은 신혼부부가 가정불화를 거치면서 결혼생활을 다져가는것 처럼 EEC회원국들이 그들의 장래에 확신을 갖고있는 증거라고낙관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林鍾乾기자】

◇佛농민들 示威 지난 8년간 수입감소를 겪어온 프랑스농부10만여명이 23일 파리에서 수십대의 트랙터를 앞세우고 歐共市(EEC)內 농산물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고 있다. 【파리23日AP蘭=聯合】

佛농민 大規模시위

파리서 10만명참가… 所得격감항의

【파리23日外信=聯合】 10만여명의 프랑스 농민들은 23일 농산물가격및 歐共市(EEC) 예산문제에 관한 EEC회의 개막을 엿새 앞두고 파리중심가에서 지난8년여간에 걸친 소득격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최대의 보수농민단체인 전국농민신디케이트연맹(FNSEA) 지도자 프랑스와·기욤이 주도한 이날 시위에서 농민들은 사회당정부의 계층간의 균형을 이룩하기위한 제반조치들이 농민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욤씨는 지난해 농촌소득이 10.5%까지 떨어졌다고 밝히면서 EEC가 폭등하는물가에 맞춰 농산물가격을 적어도 16%는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연14%의 인플레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등 高인플레국가는 EEC의 물가억제정책으로 고통을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EEC회의에서 농산물가격에 관한 일괄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나토核企劃그룹會議 개막

對蘇軍縮協商문제등 討議

【콜로라도스프링즈(美콜로라도州)23日AP=聯合】 미국을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3개국 국방상들은 23일 美콜로라도州의 콜로라도스프링즈에서 6개월마다 열리는 나토核기획그룹회의를 개막, 美퍼싱Ⅱ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문제와 對蘇군축협상문제토의에 들어갔다.

나토국방상들은 지난74년 4월이후 미국에서는 처음열리는 이틀간의 이번 나토핵기획그룹회의에서 소련과의 무기감축협상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유럽에 5백72基의 퍼싱Ⅱ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나토의 결정을 재확인할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SS20중거리미사일배치동결안을 내놓은지 1주일만에 열리는 나토국방상들의 이전략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엘叛軍 都市진격 선언

28일 總選앞두고 對政府공격加熱

【산살바도르23日外信=聯合】 엘살바도르제헌의회선거가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엘살바도르 게릴라들의 정부군공격이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23일 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들은 정부전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오지전투에서 벗어나 도시로 진격할 계획임을선언했다.

엘살바도르게릴라들의 벤세레모스방송은 『우리의 병력은 이미 농촌및 산간지역에서 적을패배시켰으며 이제는 최종승리를 위해 도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세레모스방송은 엘살바도르게릴라지원국가들에 엘살바도르구사정부와 외교및 무역관계를 단절할것을 촉구하고 다가오는 총선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없다고 강조했다.

벤세레모스방송은 이에앞서 22일 미국이 엘살바도르침공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美洲기구(OAS) 회원국들에 미국의 이같은 『범죄적인 행동』를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不信任토의 받은 베긴首相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左)이 이스라엘점령 요르단강서안과 골란고원 합병문제와관련 議會에제출된 불신임안토의가 있기직전 의사당에서 애이브라함·샤피로, 오르레차이·벤포라트의원과얘기를 나누고있다. 【예루살렘23日UPI電送=聯合】

로보트팔試驗 성공리마쳐

콜럼비아號, 耐熱타일파손불구 順航

【케이프 커내버럴24日外信=聯合】 제3차 우주비행에 나선 미국의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는 발사이틀째인 23일 상오 동체표면에 부착된 3만개의 내열타일중 37개가 떨어져 나가는등 사소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당초 예정대로 순항을 계속하고있다.

루즈머선장과 플러튼 대령등 두 우주인은 24일 새벽1시30분(한국시간)부터 약4시간에걸쳐 로보트 팔의작동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로버트팔의 작동실험을 맡고있는 플러튼 대령은 이로보트팔이 각각 3천6백㎏에 달하는 2개의 실험용기를 화물실 밖으로 끌어내는 실험을 성공리에 마친뒤 이를 TV화면에 기록했다.

휴스턴 지상관제소의 전문가들은 콜럼비아號의 내열타일이 떨어져나간것이 사고가 아니고 파손된것같다며 이사고가 대단한것이 아니어서 모든일정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루즈머선장은 소련이 레이다로 콜럼비아를 추적하고있는것같다고 휴스턴에 보고해왔다.

루즈머선장은 콜럼비아號가 이란과 중공부근 상공을 지날때 물건이 부서지는듯한 소음을 들었다면서 소련의 레이다 추적을 받고있는것같다고 美항공우주국(NASA)에 보고해왔다.

美항공우주국대변인은 그같은 소음은 어떤 추적원으로부터 레이다간섭을 받을때 일어날수있는것이라고만 말할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메아리

鐵柵線의 봄

깎아 세운듯한 산허리를 돌아 훌연 능선에 올라섰다. 오른 쪽을 보아도 절벽, 왼쪽을 보아도 가파른 언덕이다. 해발 천미터. 저 멀리 눈아래 계곡은 얼음이 풀렸는지, 물줄기가 하얗게 거품을 머금는다.

응달진 곳에는 아직 잔설이 소복히 쌓여있고 멀리 이어진 무슨 高地, 무슨 峰하는데도 눈으로 덮인채다. 5월까지 그렇게 간다는 얘기들이다. 전선의 봄은 계속 먼발치에 있는것이다.

능선위의 외줄기 길을 따라 鐵柵은 길게 뻗어나있다. 바로 이능선의 左와 右는 같은 땅이면서도 같은 땅이 아니다. 東部戰線의 북단. 능선을따라 함께 걷던 한 병사는 말한다. 『들새도 하늘높이 치솟았다가는 鐵柵이쪽의 우리 진지로 와서 먹이를 쪼고 갑니다』고. 날짐승도 北에는 먹을것이없음을 아는 모양이다.

비무장지대의 경비초소인 GP를 멀리서 보았다. 北韓쪽의 진지가 손에 잡힐듯하다. 교대차 나온 우리초병들 얘기로는 저쪽 군졸들의 동작, 표정 하나하나가 거울을 들여다보듯 보인다는것이다.

망원경으로 보면 北쪽이 바싹 다가선다. 요즘에 와서 북괴 상급장교들이 사병을 부리는 꼴은 한결 사납고 거칠어 졌다 한다. 달달볶아대는 고함소리가 이쪽까지 들릴것 같다는 이야기다. 기율이 무너져감에따라 그렇게 닦아세우리라고도 짐작되지만 그보다는 평양쪽의 거칠어지는 바람이 전선으로 불어닥친 때문은 아닐는지.

잠시 우리 병사들의 內務班을 돌아보았다. 깨끗이 정돈된 침구, 사물함. 그 사물함벽에 두뼘정도의 판자를 걸고 사진들을 붙여 놓았다. 부모, 형제, 애인, 그리고 몹시 귀여워했을 강아지의 모습까지―.

다른 벽에는 컬러 텔리비수상기가 한대 놓여있다. 전선중의 전선이라 한 이곳에 까지 후방뉴스와 행사소식, 쇼, 드라머, 모든것이 비쳐든다는 것이다.

시찰단 일행을 안내한 장교의 소청은 이러했다. 『최전방에 나와있는 병사들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여러분처럼 후방에서 이 산악지대의 부대를 좀 직접 찾아봐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거리에서 〈민정경찰〉이란 휘장을 단 병사를 만나면 바로 최전방인 이 GP의 근무자로 알고 어깨라도 한번 어루만져 주셨으면 합니다』 【東部戰線에서】

左右翼충돌 惡循環계속

쿠데타일어난 과테말라 政情

解說

◇게바라대통령당선자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사이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중미국가중 가장많은 7백26만의 인구에 비교적 안정된 경제를 유지해왔으나 지난50년대이후 좌우익간의 충돌이 계속되어왔다.

과테말라 좌우익간의 충돌은 미CIA의 지원을 받은 군부내 우파가 좌경하코보·아르벤스 대통령의 민간정부를 밀어내고 군사정부를 수립한 지난54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미국의 우파쿠데타지원은 아르벤스가 친공적이라는 명분에서였으나 실제는 아르벤스의 미국계기업국유화등 개혁정책에대한 반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65년에 새헌법이 선포되고 66년 다시 민간정부가 들어섰으나 좌익게릴라들의 준동이 격화되면서 다시 군부가 미국의 비호를받아 득세하기 시작했으며 70년, 74년, 78년 선거에서도 부정시비가 끊이지않는가운데 군인들이 계속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난70년대동안 과테말라에서는 수많은 좌파·중도파 정치인및 지식인등이 암살됐다.

정부보안군의 좌파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약3천명의 게릴라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진 4개주요좌익세력들이 지난78년이후 쿠바의지원을받아 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좌익게릴라들은 이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디언지역을 중심으로 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1만4천명의 과테말라정부군은 장비및 병력부족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퇴치하지 못했었다.

과테말라의 이번 쿠데타는 지난 3월7일 대통령선거에서 군부의 앙헬·아니발·게바라장군에게 패배한 극우파 민족해방운동(MLN)을 지지하는 청년장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행정부는 지난77년 인권문제를 이유로 對과테말라 군사원조를 중단했으나 레이건행정부는 군부의 게릴라소탕을 지원하기 위해 군원재개를 원하고 있다. 【聯合】

解放後 네번째 政權교체

방글라데시 쿠데타의 背景

◇사타르대통령

방글라데시는 이번 에르샤드 육군참모총장의 쿠데타로 1971년의 11개월에 걸친 해방전쟁으로 독립한이래 네번째 정권교체를 맞게 되었다.

75년 8월 방글라데시의國父인 무지부르·라만 대통령 일가가 일단의 장병들에게피살된이후 政情이 불안하던 방글라데시는 그해 8월 지아우르·라만 대통령의 집권으로 안정을 되찾는듯 했으나 그도 지난해5월 동료인 만주르소장의 총에 숨졌다.

이어 당시 부통령이던 압두스·사타르가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대통령에 올랐으나 계속된 정치혼란을수습하지못한채 그도 자신을지지했던 에르샤드 육군참모총장의 손에의해 쫓겨난것이다.

방글라데시의 쿠데타 임박설은 사타르 대통령과 군부와의불화가 노출되면서 간간이 흘러 나왔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군의 합참의장인 누르딘소장과 정보대장 모하바트 초우드하리소장이 2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도네시아의 행정구조를 조사, 군의 집권에대비한 청사진을 마련한것으로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또 군지도자들이 행정부최고위관리들과 비밀리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타진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에르샤드장군은 라만 대통령의 피살후 대통령서리에오른 사타르 대통령에 충성을맹세하고 정국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

그러나 사타르 대통령은 라만 대통령피살 6개월만인 11월 총선서 대승리를 거둔후부터 정권에 개입하려는 군부의 요구를 교묘히 묵살하며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군부는 산업상과 재무상이 부정거래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그들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NSC를 대통령, 부통령, 3군사령관, 內相등 6명으로 구성토록 요구했다.

사타르 대통령은 지난2월 44인내각을 대개편하는등 나름대로의 정권강화와 부정부패일소책을 썼으나 결국 강력한 군부의 신임을 되찾는데는 실패했다.

방글라데시 북부 랑푸르출신인 에르샤드장군은 1952년 파키스탄군에 입대, 78년 라만前대통령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兪奭根기자】

海外토픽

記者職이 가장위험

★유네스코 言論 고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기자직이라고 세계정보체제에 관한 한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본 윌리엄·G·할리 유네스코언론담당고문은 저널리스트들, 특히 해외특파원들은 자주 주재정부의 압력을 받을뿐만 아니라 많은 비민주국에서는 폭력의위협아래 있기 십상이라며 기자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을 가진자들이라고단언했다. 【자카르타=UPI】

40일祭중에 生還

★列車事故 死亡者가

인도네시아서부 자바의 시타양에서는 최근 열차사고로 사망한것으로 간주됐던 디딘·빈·잠하리씨(29)의 40일제가 열리고 있던중 당사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환하는바람에 이 의식에 모였던 이웃사람들을 기겁케 했다고.

자카르타의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잠하리씨는 마을사람들에게 자신이 열차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곧 회복돼 그동안 관광차 이웃 치안루르읍을 유람했다고 설명했다는것. 【자카르타=AP】

◇고양이 競艶대회 지난달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제65회 연례고양이전시회에 선보인 美國최우수 고양이들의 면면. 【뉴욕AP航空便=聯合】

波記者백여명 拘禁

12월 戒嚴선포이래

【런던23日AP=聯合】 국제신문인협회(IPI)는 23일 지난해 12월의 폴란드계엄선포이래 약1백여명의 폴란드기자들이 구금상태에있으며 이보다 더많은 수의 기자들이 생계수단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世界의 톱뉴스 【23日UPI=聯合】

뉴 욕	콜럼비아호지구궤도진입	맑음	2~11
파 리	집권사회당 참패	흐림	2~8
모스크바	蘇노조, 공산당사회 계획	흐림	-11~5
東 京	연휴로 인전없음	맑음	8~19
北 京	중공 제3세계 계속노력	흐림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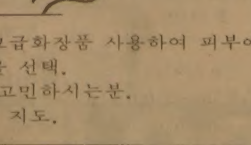
오늘의 世史 〈25일〉

▲伊지휘자, 토스카니니 出生 (1867) ▲軍布制폐지, 戶布制실시 (1871) ▲경찰범처벌규칙 공포 (1912) ▲스페인반란軍, 마드리드점령 (1939) ▲印度·英, 독립회담개시 (1942) ▲1회 學術院·藝術院회원 선거 (1954)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회소식♥
美의센타 탄생

* 최신식 장비구입
* 여드름 치료
* 잔주름 제거
* 노화방지
*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화장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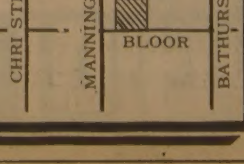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 $2.95	곰 탕 : $3.50
생선초밥 : $4.50	설 렁 탕 : $3.95
오 뎅 : $3.00	빈 대 떡 : 3개 $1.50
오뎅백반 : $3.75	만 두 : 4개 $1.00
가끼우동 : $3.00	에 그 롤 :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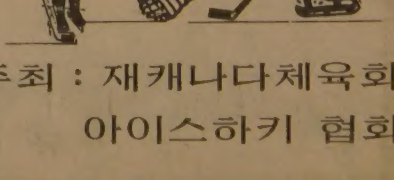


선수선발공고

본 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64회(83년도)모국동계체육대회를 대비 아래와 같이 아이스 하키 선수를 선발함

— 아 래 —

일시 : 1982년4월3일(토)오후6시30분~9시30분까지
장소 : 90 Woodbine Downs Blvd. Rexdalle(Hwy 427×핀치)
전화 : 675—7604
선발요령 : 완전하키장비를 지참할것·연령—1967년(포함)이후에 출생한자.



주최 : 재캐나다체육회 아이스하키 협회

北韓은 對話를 겁낸다

內部갈등 노출·外交劣勢 우려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내외에 천명되고 이어 對北示範실천사업 20개항(2월1일)과 南北韓고위대표 회담제의(2월25일)가 국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北韓측은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 지난1월26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0개시범사업제의에 대해서는 2월10일 이른바 「남북정치인연합회」를 갖자는 變則的인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에 국토통일원은 南北韓고위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北韓측은 한달이 되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않고 있다. 北韓측의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속사정은 어떤것인가등을 알아보기위해 孫在植통일원장관을 만났다.

우리提議 잇단拒否의 속셈과 속사정

孫統一院장관에게 들어본다

赤化불가능 깨달으면 달라질듯

올들어 대규모 使節團…9월 非同盟회의 겨냥

南北대표자회담등 즉각 應해야

뉴스 인터뷰
政治部 河長春기자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의 개최문제와 통일헌법을 마련할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문제、北韓측의 소위 南北韓정치인연합회의에 관한 문제까지도 논의하자고 한 우리의 南北고위대표회담제의가 있은지 한달이 됐읍니다。지금까지의 北韓측반응은 어떤지요。

『北韓은 아직까지 공식적인반응을 나타내지 않고있읍니다。다만 그들의 對南黑色방송인「통혁당방송」을 통해 우리의 제의를「一考의 가치도없는 정치연극」이라고 비방한데이어 지난3월1일 그들의 소위「조국전선」서기국장이 군중대회에서 보고하는가운데 우리의 정부당국자는 물론 정당·사회단체까지 통일논의에 참여할 자격이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거부하는 입장을 시사한 일이 있읍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非公式的인 방응이기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인 경로를통해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孫장관은 北韓측이 오랫동안 이렇다할 공식적인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보일 餘地를 남겨 놓고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고 조심스렵게 설명했다。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그 後續실천조치로 北韓에 제의한「對北示範실천사업」및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과 評價를 말해 주시지요。

北韓이 끈질긴 우리의對話노력에도 對話를 기피하고 있는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대한 분석은—。

『3·4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수 있겠는데、그하나는 北韓이 통일과 대화문제를 민주통일과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민족적차원에서 생각하는게 아니라 對南赤化라는 종래의 革命的차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있는 점을 들수 있읍니다。

다른하나는 저들의 對內的인측면에서 보는 이유입니다만 北韓은 통일문제현의를 위한 개방적 남북대화가 金正日후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체제내적 모순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판단、이를 미리봉쇄키 위해 對南강경노선을 계속 견지해야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對外的인 측면에서 北韓이 우리의 민주통일방안을수락할 경우 그들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선전해온 소위「高麗민주연방공화국」안이 퇴색돼 그들의통일방안에 대한 대외적인 지지도가 약화될은 물론 외교경쟁에서의 對南열세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北韓측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 계속 거부할 경우 그들을 대화에 응하도록 할 정부의 새로운 구상이 있는지요。

『北韓측이 南北대화를 오로지 공산화혁명전략을 구현키위한 수단으로 삼고 또 그런 가능성이없는대화는 거부하는 입장을 버리지 않는한 南北對話는 재개되기 어렵고 설사 재개된다 하더라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래서 北韓공산집단으로 하여금 어떠한 非평화적수단과 책략으로서도 공산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한는 것이야말로 南北대화를 올바른궤도에서 재개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이런점에서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안보태세와 내부결속을 굳건히 하는 한편 오는 9월바그다드에서 열리는 非同盟정상회담등을 이용한 北韓의 소위 국제혁명역량화보기도를 좌절시킴으로써 북한이 공산화혁명을 이룰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대화에 호응해 오지 않을수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의 構想、政策도 중요하지만 孫장관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일치된 念願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뜻이 간절하면 이룰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길을 따라 열심히 뛰어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수 있다는 佛家의 願力、기독교의 기도의힘을 예로 든다。

이어 孫장관은 유태민족의 建國의 기적을 例로 들면서 우리의통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점을 재삼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점에서 北韓측이 우리의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계속 거부하고만있어 국민가운데는 통일에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있는 안타까운 현상도 있읍니다。통일에대한 통일원장관의 전망은 어떤지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있읍니다。이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國力우위에 입각한對北자신감을 바탕으로 北韓측의허구적인 주장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의대상으로 포용하면서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민족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北韓측은 우리의 이통일방안에 대해 우리가 받아 들일수 없는 상투적인 先決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을 외면,배격하고있죠。北韓측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거부한다고해서 그의미가 퇴색되거나 내용이 변경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斷切의 역사에서 생기기 쉬운 통일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자주역량을 강화하고 국력을 계속 배양해 나간다면 민족화합과 민주적인 통일의 길은 그리 멀지않다고 확신 합니다」

—南北간에 대화가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은 통일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南과北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우리와 北韓측이 인식하고 있는 통일의 本質에서 차잇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분단된 조국의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출발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南北韓사이에 가로놓여있는 부정적인 현안문제들、말하자면 군사적긴장과 오해、불신등을 하나하나씩 해결함으로써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 바탕위에서 완전한 그리고 완성된 통일을 달성하자는게 우리의 統一觀이라고 할수 있읍니다。그러나 北韓측은 통일문제를 그들의 對南赤化혁명여건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저의를 갖고 선전적 口號로만 내세우고 있읍니다。

北韓측이 그들의 통일방안에서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은 우리측이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써 이는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도 통일을 외면하고 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民主,평화통일인데 반해 北韓은 폭력통일또는 赤化혁명을 추구하고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제의이후 北韓측은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劣勢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있다。이를 경계하는마음에서 北韓측의 최근動向을 물어보았다。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가 확산되가는데 당황한 저들은 지난1월이후 지금까지 18개고위대표단을 50여개국에 파견하는 대대적인 訪問외교활동을 전개해 소위 그들의「聯邦制」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 모략과비난을하고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北韓의 방문외교행각과 관련,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北韓의 불순한 企圖를 봉쇄해나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때 北韓이 對話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는 金正日체제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한데 이에대해。

『北韓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겠으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들의 金正日후계체제구축에 따른 對內的인 갈등과 알력이 심화돼 이것이 밖으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과거 南北대화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화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北韓사회의 개방을 수반케되며이 사회개방은 결과적으로 北韓주민에게 南北韓의체제를 비교할수있게하는 기회를 갖게할것입니다。

따라서 北韓은 대화가 가져올 南北韓사회개방이 그들의 金正日후계체제구축에 미칠 위협이나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키 위해 지금까지의 對南강경노선을 따르면서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민족통일협의회의와 北韓의 소위 통일촉진대회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봤다。

이에 孫장관은『우리의 통일협의회의는 남북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이 만나 통일국가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저들의「촉진대회」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南北의 대표도 아닌 대표들이 모여 소위 高麗민주연방공화국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자는것』이라고 비교·설명하고 저들의 통일촉진대회에는 우리의당국은 물론 反共정당과 단체를 배제하는 반면 심지어 통혁당 대표등 특정인의 참가를 주장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덧붙인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후속제의인 南北韓 고위대표회담제의에 대해 北韓측은 한달이 되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않고 있다。北韓측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孫在植장관。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⑰ (題字 金蘇東)

다채로운 趣味생활

촬영견학·기타敎習에 運轉실습·見聞여행도

돌진하는 젊은이의 욕구는 늘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졌다。이때부터 映畵에의 욕구를 실천으로 옮긴것 같다。교내 영화클럽에 가입해서 감상회、평론회、촬영견학、스튜디오참관등 색다른 행사들이 나의 취미생활을 다채롭게 했다。

학업을 고수하는 본분에서 결코 이탈한 것은 아니나 과외활동이 과중했으므로 늘 시간에 쫓기고、늘 피로했다。친구들로부터 욕심이 너무 많다고 늘 힐책을 받았다。

하면 내것이 된다는 맹목적인 투지만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다。다마까와(多摩川)에 있는 日活촬영소를 견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타교습소에 들르고、하학후에는 다메이께(溜池)에 가서 자동차운전도 배웠다。그렇게 바쁘나날을 보내면서도 한결같이 나는 행복했다。나의 다정다감한 다혈질적 성격은 빨리 同化하고、빨리 습취하고 또 빨리 실천에 옮기려는 남다른 벽이있다。

모터클럽회원들과같이 운전연습을위해 아따미(熱海)등으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떠나기도했다。두시간 교대로 운전실습을 했다。

아따미 해안에는 소나무밑에 큰돌 비석이 서있다。여기가 바로 오미야(お宮)와 감이찌(貫一)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 곳이라 한다。

이 비석에는 금색야차「金色夜叉」라 써있다。우리나라개화기에「장한몽」(長恨夢)이란 소설이 바로 이 오자끼·고요(尾崎紅葉)가 쓴「금색야차」의 번역이다。나는「장한몽」을 연쇄극(連鎖劇)으로 봤다。大同江 철교에서 떨어져 투신자살을 기도한 심순애를 김중배가 구해주는 장면을 영화로 보고 금방 불이 켜지면 무대위에서는 어느새 스크린이 올라가고 김중배가 물에 빠진 심순애를 안고 천천히 무대중앙으로 걸어나온다。이 신기한 연극을 당시는 연쇄극이라 불렀다。

1920년대 한국연극에서는 이 연쇄극이 한동안 유행했고 또 큰인기를 모았다。러시아에서 발상한 이 키노드라마(Kino Drama)는 그시대 여러나라에 파급되어서 새로운 형식의 연극으로 널리알려졌다。

일본소설「금색야차」는「장한몽」으로 탈바꿈을 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아따미를 평양으로 바꿔놨을 따름이지 그 주제가까지 똑 같다。「아따미 해안에서 산보하는 관이찌 오미야 양인이로다。둘이 같이 걷는 것도 오늘뿐이며 둘이 함께 말해봄도 오늘뿐이다」를「대동강변 부벽루에 산보하는 이수일과 심순애 양인이로다。악수논정하는 것도 오늘뿐이요 보보행진 산보함도 오늘뿐이다」로 옮겼다。

이보다조금 앞서서 일본에서도오자끼의「금색야차」의매력이일본전토를 풍미했거니와「이수일과심순애」의 번역극도 한반도를 석권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파연극의 붐이 왕성하게 일기시작했다。홍도붐이 바로 그것이다。「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사랑에속고 돈에울고」동이그대표적인것이다。

◇모터클럽회원들과 장거리드라이브를 나갔을때 찍은 기념사진。오른쪽에 앉아있는게 필자다。

아따미서「金色夜叉」신파극 관람
日學生들과 新小說·일본영화討論

해안가에서 도시락을먹으면서 일본학생들과 일본의 신소설과신파를 논하고 또일본영화에 관해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피력했다。

우리들의차는어느새 슈젠지를 지나 아미기(天城山)山谷 깊숙이 울창하게 우거진 老木사이를 지난다。나무가지위에서 팔긴원숭이들이 손에 손을잡고 세마리、네마리 연결되어서 자동차본네트위로내려온다。처음본는 동물들의 곡예다。차를멈추고 그들에게 비스킷을 주었더니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모여든다。금새 10여마리의 원숭이들이 차를 둘러쌌다。나는 로버트·후라하티의 다큐멘터리영화「터부」를 연상하면서 남양군도의 정글속에 내가 있는것처럼 느꼈다。

이곳은 일본의 천연보호지역으로 여기에서만 살고있는 팔긴 원숭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했다。훗날 이곳에 와서 꼭 다큐멘터리영화를 한편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으로 북아시아에서는 보기드문 광경을 주의깊게 관찰했다。그후 또한번 이곳을 지났으나 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것을 느껴보면서 내 심금에 접촉되는 새로운 사물들을 영화와 연관지어보았다。어느새 차는 높은 山마루에 올라왔다。이또가 보이는 태평양바다가 멀리 전개된다。

美術

重鎭작가 11人展

選美術창간3주년기념 중진작가11인전이 24일부터 4월5일까지 選화랑에서 열리고있다。

출품작가는 金基昶·金昌洛·金炯蕫·文學晉·卞鍾夏·劉永國·李世得·任直淳·張旭鎭·張利錫·崔榮林씨。

이번전시회는 지금까지 판화에 손대지않은 원로·중진화가들이 직접판화를 제작하거나 판화공방을 이용하는등 판화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11명중 판화를 직접제작한 사람은 張利錫·崔榮林씨。

외국에선 피카소·미로등이 판화공방을통해 작품을제작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일。우리나라에서도 金基昶씨같은 동양화단의 원로가 판화제작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자극제가 될것으로 보이며 다른 작가들도 판화제작을 시도할것으로 전망된다。

◇金基昶씨의 리토그라프 版畵。

제9회 創林會展

創林會展이 26일부터 31일까지 미술회관에서 열린다。제9회전으로 金垣 金貞姬 金在浩 金鎭冠 金贊會 朴昇彬 宋秀璉 安鳳奎 禹熙春 俞南植 柳鍾相 尹福姬 李起晩 李承玟 李日鍾 李之蘭 金來植 鄭載興 崔秀榮 許榮姬 黃瑞性 黃禹性씨등이 2점씩 작품을 내놓았다。

崔斗高 서예작품전

仁山 崔斗高서예작품전이 26일부터 4월1일까지 한국아랍문화회관에서 열린다。첫개인전。액자、병풍、가리개등 30여점이 선보이고 鄭弘巨、陳炳植、張遇鴻、金東俠、丁酉鎭、李祥薰、金亨石、金銀集、趙炳漢씨등이찬조출품한다。

金榮泰·朴堤千씨 詩人協會賞 수상

한국시인협회는 제14회 韓國詩人協會賞의 수상자로 金榮泰씨(시집「여울목 비오리」)와 朴堤千씨(시집「律」)를 선정했다。

青年의 이야기

崔貞熙 〈作家〉

十字春秋

세월이 그다지 가지않았는데 어느새 나는 青年의 이름을 잊어버렸다。青年이 처음 나를 찾아왔을때 나는 그를 少年으로 보았다。알고보니 카리에스를 앓아서 남들처럼 제대로 자라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青年이 나를 찾아올때마다 술을 약간씩 마시는 것을 알았으나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남들처럼 제대로 자라지못한 모양새를 떳떳이사람앞에 내세우기가 싫고 두려웠던 탓이려니 했다。나는 늘 青年에게 관대할 수가 있었다。

青年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면 가까운 시일내로 단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겠읍니다 하고 갔다。나는 青年의 말을 믿었다。그가 남들처럼 제대로 자라지못한 대신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을 보유했을 것으로 믿고 있었고、따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출품 기다렸었다。나는 오히려 青年의 不具를 다행하게 여기기까지 했었다。

어느 한 때의 나는 펜대를 쥘수있는 오른 손만 남기고 四肢가 몽땅 떨어져 나가도 좋다는생각을 한일이 있다。그렇더라도 보다 나은 글을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四肢가 몽땅 떨어져나간 女子를 男子가 거들떠 보지않을 것이 분명했다。男子가 거들떠 보지않는 女子의 처참함을 어떤말로 설명해야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다。하늘과 땅만큼 서럽고 슬프다고하면 될까? 내가 青年의 不具를 다행히 여긴것은 바로 이와같은 마음인 것이다。

내가 거의 석달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나 青年은 끝내 단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오지않았다。갑자기 수필집을 내는 일로해서 나는 다급하게 서울에 돌아오고 말았다。서울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 되던 어느날─성모병원(몇호실이던지는 잊어버렸다)에 입원해 있읍니다、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는 두마디의 짧은 글발을 받고나서 나는 왜 그랬던지 이틀이나 지나서 병원으로 갈수 있었다。애닯게도 青年은 그새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없었다。─가까운 시일내로 단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온다던것도 만들지못하고、남들처럼 제대로 자라지못한 그 모양새를 青年은 이세상에서 감춰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오랜뒷날제주도에갔을때 青年이나가던 학교근처 길을걷다가 그학교 돌안을 넘어다보았다、코스모스가 피어서 교정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한국일보 詩壇

時間 앞에서

安惠初

시간앞에 한번이라도
무릎꿇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손들어보세요
시간앞에 한번이라도
두손 놓고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
햇살로 햇살로만
내달을 수 있던 사람
나는 바람이야 구름이야
물결이야
버릴 것 제때 제때 다
버리고
어디론가 비인 가슴으로
훌훌 떠나고싶던 사람
사람이라면 결코 식어가서는
안될
핏줄의 정 (情) 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식어가게하면서
그 어떤 크기의 쓰라림이나
노여움、억울함에도
편안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길들여지게하는 힘、
시간앞에 감사해하면서
시시각각 눈을 흠뜨는 사람
손들어보세요、손들어보세요。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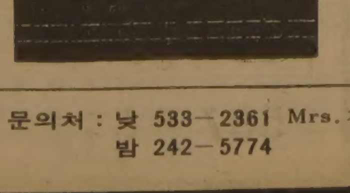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푸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MRS. 전
☎ : 363-6077

詩의 妙味는 관계맺음에

이달의 詩

우리 주변의 삼라만상은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저마다 그 존재의미를 주장한다. 이들을 한 문맥속에 수용해서 구조물이 되게하는데 詩의 묘미가 있다. 詩는 또한 吟味 歌唱되는 양식이었다. 그 흐름은 韻律로 전승되어 왔다. 그리하여 詩는 변형된 모양이기는 하지만 가락을 요구한다. 우리가 詩를 音味의 音樂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吳圭原의 <믿음은 별이라서>(現代文學)는 시가 지녀야할 요건을 아주 집약적으로 확보한 성싶은 작품이다.

본래 <별>과 <믿음>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걸 이작품에서는 아주 독특한 각도에서 상관관계를 성립시켰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서
각자 달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작아서
너무 인간적이라서
우리의 믿음은 해탈과는
너무 멀어서
몸은 작고 여기에서 멀리있다
그러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이 어둠을 반짝이겠는가
믿음은 별이라서
작아도 모두 반짝인다

이 작품에는 비슷한 말들과같은 귀절들이 되풀이 되어 쓰여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줄에는 제목이 된 귀절이 그것도 두번이나 되풀이 되어있다.

본래 韻律이란 동일하거나 비슷한 호흡의 과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음성구조에 대한 배려를 각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 작품에서 <믿음>이 별로 비유된이유는 대충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를 에워싼 기류 내지 상황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화자의 의식 내지 내면 세계를 나타낸듯 보인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도 <믿음>은 <각자 달라서>저마다의 의미와 존재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그것은 어두움이 짙을 수록 그 빛을 더해간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천체의 유추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하여 <믿음>과 <별>이라는 매우 동안이 뜬 두 事象이 한 작품에서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내고 있는 것이다.

韻律의 호흡에 세심한 배려

—吳圭原「믿음은 별이라서」

선명한 心眼…詩의 美德확보

李炳勳「아침發生」

한편 徐宗澤과 李炳勳은 관계를 맺어주기위해 매우 참신한 생각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선 徐宗澤은 그의 무대를 후미진 산골로 택했다. 거기에는 여느 산골이 다 그런 것처럼 봉우리와 그골짜기를 흐르는 시내, 그리고 그자락에 아무렇게나 핀 민들레가 있다. 그걸 徐宗澤은 모두 마음의 그림자로 바꾸어 놓았다.

입을 삐죽거리며 돌아
누운 山
길을 잃고 골짜기에 갇혔읍니다
무덤대며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山 속을 뒤지다가 그냥 갑니다
당신이 한번도 오지 않은 곳
민들레꽃만 혼자서 피었읍니다
아득한 길 지우며 피었읍니다.
—「哀歌」전문「世界의 文學」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 작품에서 주인공에 해당되는 것은 민들레다. 그리고 민들레는 물론 이름 없는 풀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徐宗澤은 우리의 마음속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리움, 또는 기다림의 심상을 지니는 객체로 제시해놓았다.

그리하여 또하나 발견의 장이 열려진 셈이다. 특히 이 작품 마지막 귀절에는 훌륭한 비약이 있다. 민들레기 거기서는 구상의 자리를 벗어나 추상, 형이상의 공간을 빚어낸다. 그리하여 素月이나 金永郎流의 서정소곡이 지니는 차원에서 벗어나 상징의 깊이를 거기에 더 추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李炳勳도 이와 비슷하게 사소한느낌을 그 제재로 삼았다.

◇吳圭原 ◇李炳勳 ◇徐宗澤

그 代名은
이슬의 눈이라 하자. (중략)
가깝고 먼 마을은 불빛까지 꺼지고
사방이 비어버린듯 어두운
시간에
內面의 밑바닥에서
차츰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목숨의 發生
그 代名은
薄明의 눈꼽을 뜯고
길가에 나가 서는
아침이라 하자
풀잎에 와 살을 대고
떠는 햇빛이라 하자.
—「아침發生」「韓國文學」

具象의자리 벗어나 形而上의空間 빚어 徐宗澤「哀歌」

여기서 주제어가되는 것은<그 代名>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대명이어서 우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딱잡아서 무엇이라고 지적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작품의 주제어는 끝내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걸 李炳勳은 이슬로 밝음으로 또는 햇빛으로 비유해 놓았다. 말하자면 관계가 다발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그 심상은 매우 선명한 모양으로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주변의 시가 지녀야 할 미덕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달의 佳作으로 손꼽고 싶은것에 黃東奎의 <歌尺의 노래놀이>이하 몇편과 설의웅의 <낙엽>(現代文學), 김옥영의 <우리들의 오장市>가 있다. 특히 黃東奎의 경우는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격조가 일품이다. 제한된 지면을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

金 容 稷 <서울大교수>

佛語「카르멘」공연

연출가·主役 프랑스人이 맡아

人間性 부각 "새로운맛"기대

金慈璟오페라 創團 15주년맞아

團員들 수개월간 佛語공부

音樂話題

창단 15주년을맞는 金慈璟오페라단은 우리나라 음악사상 처음으로 原語인佛語로 오페라 카르멘을 27, 28일 하오2시, 6시30분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공연한다. 프랑스의 오페라 작곡가 조지스·비제의 마지막 작품인 카르멘은 경쾌하고 아름다운 아리아들과 재미있는 스토리로 최대의 걸작 오페라로 꼽힌다. 카르멘은 세계오페라 가운데서 가장 자주 공연되며 공연때마다 많은 청중을 모으는 작품이다.

金慈璟오페라단은 카르멘 全4幕의 상황과 아리아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어 스토리와 아리아의 가사내용에 익숙해 있다는점을 감안, 카르멘의 원래가사의 맛을 살리기 위해 佛語로 全4幕을 공연하는 모험을 시도한다.

「카르멘」에 출연할 12명의 주요 성악가들과 50여명의 합창단은 佛語가사를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 불란서문화원에서 수개월간 불어발음 지도를받아왔다. 카르멘에 출연하는 소년 소녀 합창단원들도 불어 지도를받아 노래하게된다.

金慈璟오페라단은 카르멘의 현대적인 해석가로꼽히는 프랑스 연출가 모리스·아티아스씨와「카르멘」의 주역으로 프랑스의 메조소프라노 다니엘·그리마양을 초청, 새로운맛이 담긴 카르멘을 보여준다. 연출가 아티아스씨는 지난81년 가을 파리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을 연출, 약15만명의 관람객들을 모은실력 만만한 연출가로, 지금까지의 카르멘무대와는 다르게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현대적이고 대담한무대를 꾸민다.

또한 스토리중심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카르멘과 돈·호세의 人間性과 인간성을 두드러지게 파고들어 오페라속에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다. 아티아스씨는 한국공연을위해 그가 만든 무대 장치를 가져왔다. 날씬한 키에 정열적인 인상의 다니엘·그리마양은 드라매틱·소프라노로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와 같이 음역이 강하고 짙은 오페라에 자주 출연한다. 「카르멘」의 주역을 60회이상 맡은 그리마양은 최근 독일 비스바덴극장에서「카르멘」「엘렉트라」에 출연해서「뛰어난 오페라 가수」라는 평을 들었다.

그리마양은『외국의 경우 개인이 오페라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게 힘들어 대개 정부가 주도해가는데 金慈璟씨와 같은 한여성이 15년간이나 오페라단을 끌어온데 대해서 몹시 놀라고 감동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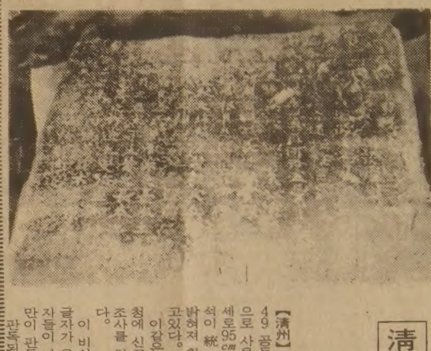
오페라「카르멘」의 연주는 金慈璟 오페라관현악단이 맡고 지휘엔 洪燕澤씨. 박순복 배행숙 김성길 박수길 안지환 박현식 고성진 임성용 정영순 윤명자씨등의 성악가가 출연한다. 【風桂淑기자】

◇오페라 카르멘의 主役을맡은 다니엘·그리마양. 자신의 키가 상대 돈·호세역의박섬원 정광씨보다 훨씬 커서 키맞추는 묘안을 한창 강구중에 있다고 말한다.

清州서 統一新羅碑石발견

공동우물서 빨래판으로 쓰던것

2百90字陰刻 80여字 판독가능



【清州】충북清州市雲泉洞49 공동우물빨래판 (사진)으로 사용해오던 가로92㎝·세로95㎝·두께15㎝의 화강석이 統一新羅초의 비석으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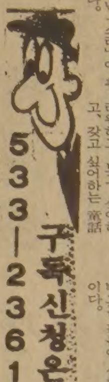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주민들이 시청에 신고, 시청이 忠北大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이 비석에는 총2백10자의 글자가 음각돼있으나 많은글자들이 마모돼 현재 80여자만이 판독할수 있을정도다.

판독된 비문중에는『壽拱二年丙戌』이란 연호가 있어 統一新羅시대의 神文王6년(서기68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一心法師』·『沙門普恩之所造』라는 글씨도 판독, 이비석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雲泉洞 옛절터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한편 비석조사를 맡고있는 忠北大사학과 車勇杰교수는『아직 전문을 판독하지못해 정확히 어떤 비인지는 모르겠으나 神文王때 만들어진 절터에 세운비가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鈴】



「클로스·엔카운터」

映画評 邊 仁 植 <영화평론가>

우주의 神秘 高度의 映像기술로 승화

UFO(미확인비행물체)와 인간의 극적인만남을 빛·소리·컴퓨터로 그려낸「클로스·엔카운터」를 본것은 작년 3월 미국에서였다. LA영화견본시에 참석한 우리나라의 극장경영인 2명과 함께 극장문을나서면서 나는 돌비스테레오가 솟아낸「소리」에 취해있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스티븐·스필버그(34)는 스뉴·시네마의 가수답게영화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치밀한 구성으로, 비단을 짜듯 그려냈다.

스필버그는 약관 27세에「조스」를 감독했고, 이어「클로스·엔카운터」「레이더스」를 내놓아 흔들리는 미국영화계의 기둥역할을 했다. 그의 영화소재는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童話的인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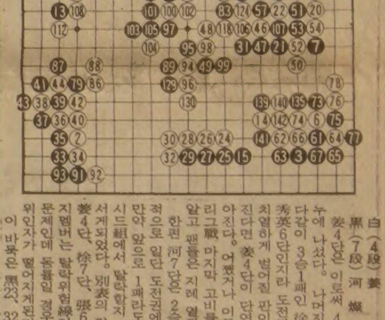
「클로스·엔카운터」(원제=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는 영화의 기술고문을 맡고있는 알렌·하이네크박사가 쓴「비행접시, 그 과학적인 추적」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미 지구상에 나타났던 UFO의「목격」「흔적」에 이어 아직 실현되지않은 UFO와의「만남」을 이 영화는 예고하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지금까지 세계도처에서 일어났던 UFO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있으나 UFO의 유도를 그린 후반45분은 이영화의 압권이다. 프랑스의 UFO학자 라콤이 만들어냈다는 5음계를 이용한 UFO와의 교신장면은 장엄하면서 신비감을준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데블·타워산에서 촬영한 UFO와 인간의최초의 근접상면장면은 빛과 소리의 예술인 영화기술의 극치를보여준다. TV가 결코 흉내낼수없는 우주의 신비를 스필버그는 필름에 실현한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總譜142手完 白不計勝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 姜 勳 (4勝0敗)
黑(7段) 河 燦 錫 (2勝2敗)

姜4단은 이로써 4승무패, 단독선두에 나섰다. 나머지 2판의 상대는 다같이 3승1패인 徐奉洙7단과 張秀英6단인지라 도전권쟁탈전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판이지만 승률로 따진다면 姜4단이 단연 유리하다고 보아진다. 어쨌거나 이들3명의 대결은 리그戰 마지막 고비를 장식할 것으로 알고 팬들은 지레 열광하고있다.

한편 河7단은 2승2패 반반의 성적으로 일단 도전권에서 멀어졌고 또 만약 앞으로 1패라도 더하는 날이면 시드組에서 탈락할지 모르는 입장에 서게되었다. 別表의 전적이 말해주듯 姜4단, 徐7단, 張6단을 제한 나머지멤버는 탈락위험線인 3패의고비가 문제인데 동률일 경우 표의서열이 하위인자가 떨어지게된다.

이 바둑은 黑23, 32등 실리위주에 대해 白은 차연 외세로 맞서다가 黑51에서 판국이 급변했다. 이뒤 黑79는 120자리에 붙쳐할 시기였는뜻. 그보다 黑113이 완착이었다. 이수로127자리 포위하여 白을 잡아두어야 黑승이 확실했고 다음 黑123은 125로 타협할 시기인데 뜻밖의 패싸움에서도 黑135가 중대한착각. 이순간 黑敗는 결정되었다. 45…38, 128、134…22、131…57。소비시간 白1·30、黑1·4·10。【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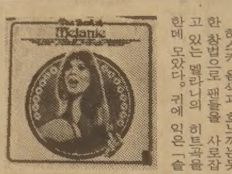
姜4段 無敗로 獨走

	徐	張	徐	姜	河	姜	鄭	勝	敗
徐奉洙7	╱		○		×	○	○	3	1
張秀英6		╱	×		○	○	○	3	1
徐能旭6	×	○	╱	×			×	1	3
姜 勳4			○	╱	○	○	○	4	0
河燦錫7	○	×		×	╱	○		2	2
姜哲民6	×	×		×	×	╱	×	0	5
鄭壽鉉4	×	×	○	×		○	╱	2	3

세디스크

■허스키音色멜라니걸작집

허스키 음색과 흐느끼는듯한 창법으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멜라니의 히트곡을 한데 모았다. 귀에 익은「슬픈 것들」을 비롯해「캐롤라인」등 9곡 수록. (大星)



女性界 소식

세계어린이 그림展 15세미만 작품모집

어린이회관은 자유중국에서 열릴 세계아동화전에 보낼 그림을 모집하고있다. 6세~15세까지의 어린이가 그린 유화 수채화 크레용화 파스텔화 판화등을 31일까지 동회(서울성동구능동산3의39)로 보내면 된다. (446-061)

胎敎大學 강좌마련

한국인간개발아카데미는 22일부터 한달동안 주·야간으로 나눠 유태인식 胎敎法 특강을 갖는다. 문의전화(222-897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③

『네가 중매를?』

할머니가 실망한듯이 입을 비쭉댔다.

『네, 제 친구 동생인데 속내 알고 인물도 괜찮고 학벌도 미국유학까지 하고 왔으니 고모보다 못하지않고 또 그 쪽에서 몸 닮아하는 혼인이니까 될성싶은데요』

『그쪽에서 몸 닮아하다니 그럼 벌써 선까지 봤나?』

『아뇨, 정식으로 본게 아니라 고모하고 나갔다가 우연히 신랑자리를 길에서 만났는데 전 그때 서로 인사도 안시켰거던요. 고모가 좀 쌀쌀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신랑자리가 저한테 고모를 정식으로 인사시켜 달라고 들입다 조르지 뭐예요. 오늘 그집에도 이하교졸업생이 있어서 양가가 같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예약을 해놓았으니까 거기서 우연히 또 만난것처럼 두사람을 인사시키면 자연스럽고, 또 양가 어른들도 별 부담없이 신랑색시를 선보일수있을 것 같다시없이 좋은 기회일거예요』

『그래 그래, 네가 참 애쓰는구나. 우리 형진 에미는 싹싹하고 영명하기도하지. 형진애비가 조실부모한 대신 장가 하나는 잘 갔다. 에미만 살았더라도 그저 재미에 손이 질게 없으련만』

할머니의 흐린한 안정이 금방 그렁그렁해졌다.

이때 대강당에서 졸업생이 쏟아져 나왔다. 얼마 안되는 여학생들은 대개 가운속에 고운 한복을 입고있어서 돋보였다.

지성의 상징일뿐아니라 여성에 있어서는 해방의 상징까지 겸한 학사모와 학사가운이 가장 비활동적 비능률적인 구속의 상징같은 한복과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는게 절로 미소를 자아냈다.

수지는 목에 청색 깃을 느린 가운밑에 모본단 다홍치마를 우아하게 펄럭이며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붉은 장미꽃다발을 안고있었고 평소안하던 화장을 한 얼굴이 상기해서 곱게 달떠보였다. 할머니가 동백나무가지에 국화꽃 세송이를 곁들인 꽃다발을 내밀면서 말했다.

『할미 꽃다발은 구닥다리지?』

『아녜요. 할머니 꽃이 아마 제일 오래갈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냐. 올핸 시집가거라, 꼭』

조카들도 고모 고모 하면서 꽃다발을 내밀었다. 수지가 꽃다발에 파묻히자 수철은 사람들을 한줄로 세우고 저만치 떨어져있던 운전기사한테 눈짓을 했다.

『자아 어서 사진 몇장 찍고 점심 먹으러 가자. 할머니 시장하시겠다』

여기 저기서 이미 찰칵찰칵 사진들을 찍어대고 있었다. 수지도 가족사진도 찍고 혼자서도 찍고, 친구하고도 찍고 할머니하고도 찍고, 부모처럼 길러준 오빠 내외하고만도 찍었다. 될수있는대로 많이 찍어두지않으면 학사위가, 석사학위가, 휴지조각이 되어 어디로 날아가버릴것처럼 십년 공부 이십년 공부가 한장의 사진에 담긴 것처럼 여기 저기서 찍고 또 찍고 맹렬히 찍어댔다.

마지막으로 독사진까지 찍고나자 수철이는 하객들의 수효를 대강 점검하고 나서 아내와함께 교통편을 의논했다. 친구의 승용차를 한대 빌어서 차가 두대건만 하객을 다 태우긴 반지빨랐다.

『수지야, 네 친구들은 택시로 오게해도 되겠지?』

『내 친구는 신경 쓰지마세요. 그리고 나도 좀 나중에 갈테니까 먼저들 가 계세요. 할머니 시장하시지않게 나 기다리지말고 식사도 먼저 하시구요』

流星의 賦 <341>

風前의 燈火⑯

李炳注 作 李友範 畵

대강의 계획이 짜여졌다.

우선 식량의 준비가 시급했다.

뒷일은 자수와 김달손에게 맡기고, 긴급용 식량을 준비하여 홍계남은 조인식들을 따라 진천으로 향했다.

왜병들의 진로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길 아닌 길을 걸어야만 했다.

도중 죽산(竹山)엘 들러 그곳 산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으로 갔다.

일행이 진천에 이르렀을 땐 밤중이 지나 있었다. 홍계남은 어두어서 얼굴도 채 볼수 없는 병사들에게 우선 안성에서 마련해 온 주먹밥을 먹여 요기를 시킨 다음, 초승달이 돋아오를 무렵 군사들을 점검했다.

이일 휘하의 군졸이 80수명. 신립 휘하의 군졸이 백여명이었다. 그 가운데 부상자가 40여명이 되어, 이들은 날이 새기 전에 안성을 향해 출발시키고 보행을 못하는 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인근의 민가에 의탁할 요량을 했다.

그러고 보니 쓸만한 군사는 150여명 밖엔 되지않았다. 이 150명을 3대로 나누어 각각 50명씩으로 하고, 각대의 장은 자기들 끼리 호선하도록 했다. 군졸들의 내력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지휘는 홍계남 스스로가 맡고, 그 직속막료로서 조인식을 임명하고 연락병 수명을 역시 자기 막하에 두었다.

이러한 편제를 하는데 있어서의 홍계남의 두뇌는 기민했다. 실의에 젖어 있던 군사들도 서슴 없이 대열을 수습해나가는 계남의 수완에 탄복하여 차차 사기(士氣)를 회복하는 것 같았다.

먼동이 틀 무렵 각대에서 선임한 대장(隊長)의 명단(名單)이 올라왔다. 제1대의 대장은 변갑수(邊甲守)란 정병(正兵)이었고 제2대의 대장은 황충량(黃忠良)이란 대졸(隊卒)이었고 제3대의 대장은 김봉준(吉鳳俊)이란 팽배(彭排)였다.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구별도 없고 종래의 계급에 구애됨도없이 각자의 인망과 자질에 따른 선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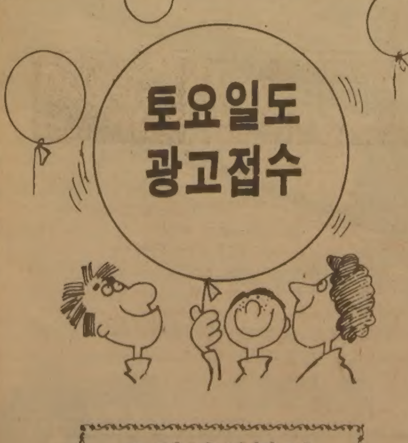
이와같이 대략의 편제가 끝나자 홍계남이 일장 훈시를 했다.

『우리는 나라와 백성을 건지기 위해 한덩어리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지성이면 우리 150명으로서 능히 15만의 적을 당해낼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성일수 없으면 저 열 명도 당해내지 못하는 오합지졸(烏合之卒)일 뿐이다. 우리의 지성이 감천하면 오늘의 150명이 1500명, 1만5천명, 15만으로도 불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감천(感天)케할 지성이 없으면 적을 보자 뿔뿔이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도 여기서 말한다. 지성이 없는 자는 가라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나의 비겁자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방천이 조그마한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이치와 같다.

지금 떠나면 나는 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단 남을 각오를 했으면 생명을 내게 맡겨라. 군령(軍令)은 앞으로 지중하다. 일단 맹세를 한 후엔 군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 내 비록 미천한 관직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은 나라의 명령이다. 내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 하면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가 있을 뿐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겠다면 손을 들어라! 이건 아직 명령이 아니니 자, 기 재량껏 하라』

모두들 일제히 손을 들었다.

그손과 손들에 오월의 아침해가 부셨다.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구시켄 藥物工作 알았다 가네히라에 搾取만 당해"

文春보도

日警, 곧정식搜査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미쓰이(三井) 일본경찰청장관은 24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가네히라(金平)」독물공작사건」에 대해 「현단계에서는 [illegible] 수집하고 있는 중이며, 상해죄에 해당되는 증거가 수집되는대로정식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週刊文春은 4월1일자에서 타이틀13차방어에 성공했던 구시켄·요오꼬가시전에 가네히라의 독물공작을입고있었다고 보도하고, 가네히라가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타이틀방어에 집착한것은 챔피언의 막대한 수입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週刊文春에 의하면, 구시켄은 제5차방어전(對리오스) 제8차방어전(對로페스) 제12차방어전(對바르가스) 제13차방어전(對플로레스) 때 가네히라의 약물음모를 알고 있었다는것。가네히라는 구시켄의 14차방어전(對플로레스·81년3월8일·오끼나와)때 주최권을 그고장의업자에 넘기면서 5천만엔의흥행료를 받았고 이밖에TV중계권료 7천만엔, 구시켄의 광고출연료등을합쳐 모두 1억1천만엔의 수입을 올렸으나 구시켄에게 지급된것은 3천5백만엔의 개런티 뿐이었다고 폭로했다。

「15분壁」을 깨자

한국마라톤 中興의 계기로

서울 國際마라톤 앞으로3일

한국마라톤의 血路가 트일까。오는 28일 낮12시에 열리는 제1회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세계 톱·클라스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침체된 한국마라톤에 큰 자극제가 될것으로 보인다。마라톤을 페스티벌로 전환시킨이번 국제대회에는 26개국서 외국초청선수 54명, 한국초청선수20명을 비롯하여 주한외국인 1백2명, 외국선수 30명, 국내일반선수 7천2백20명등 모두 7천4백26명이 출전, 국내 초유의 매머드 행사도 관심을 모으고있다。

7千4百26명 大레이스

進行요원 5百80명동원

出發신호는 百5㎜禮砲로

招請외국선수 先頭로 2百50명씩 묶어

30列縱隊로스타드에만 4분가량 걸려

◇빌·로저스

◇앨리슨·로

◇朴元根

◇林相圭

◇세계 역대 마라톤 10걸

	선수	기록
▲남자		
①	알베르토·살라자르(미국)	2시간8분13초
②	데·카스텔라(호주)	2시간8분18초
③	클레이튼(호주)	2시간8분33초
④	니블(네덜란드)	2시간9분1초
⑤	소·시게루(일본)	2시간9분5초
⑥	톰프슨(영국)	2시간9분12초
⑦	세꼬·도시이꼬(일본)	2시간9분26초
⑧	빌·로저스(미국)	2시간9분27초
⑨	론·힐(영국)	2시간9분28초
⑩	치에르핀스키(동독)	2시간9분55초
▲여자		
①	앨리슨·로(뉴질랜드)	2시간25분29초
②	와이츠(노르웨이)	2시간27분38초
③	패티(미국)	2시간27분51초
④	로랜·몰러(뉴질랜드)	2시간29분36초
⑤	조이스·스미드(영국)	2시간29분57초
⑥	크리스티안슨(노르웨이)	2시간30분09초
⑦	줄리·세아(미국)	2시간30분12초
⑧	존·베노이(미국)	2시간30분16초
⑨	재클린·가로(캐나다)	2시간31분26초
⑩	그로텐베르그(노르웨이)	2시간33분02초

이번 대회에는 2시간9분27초로 외국초청선수 가운데 가장 기록이좋은 빌·로저스(미국)를 비롯하여 2시간10분의 마르크·스메(벨기에)등 우수선수들이 출전하고있다。이밖에 기록별로보면 2시간11분대가 1명, 12분대가 2명, 13분대가 5명, 14분대가 7명, 15분대가 4명이나 참가하고있다。또한 여자부문서는 2시간25분29초로 세계최고 기록을 갖고있는뉴질랜드의 앨리슨·로, 호주의 드레이크, 덴마크의 메테·한센등 10명의 외국선수가 출전한다。

8년전 文興柱가 2시간16분15초의 한국최고기록을 세운후 답보상태에빠져있는 한국은 朴元根 南仁圭 林相圭 柳在聖등 16명을대표로선발, 외국선수들과 겨루게 되지만 상위입상보다는 文興柱의 한국기록을 깨고 2시간15분대 이내 돌입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한국마라톤의 비약적인 발전을위한 디딤돌구실을 할 이대회서 과연 한국선수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수있을지 기대가 크다。

여자선수로는 林敬子 安春子 崔京子 李美玉등 4명이 출전하는데 林敬子만이 2시간47분3초로 비교적 좋은기록을 갖고있을뿐 나머지 선수는 모두 3시간대。

4차례의 수정끝에 확정된 마라톤코스는 여의도광장(럭키그룹사옥)—국회앞—윤중제—대방교—수산시장—신반포주공8등—성수대교—잠실체육고—잠실대교—구의동저수지—용비교—이촌동 쌍용양회—여의도광장(KBS본관)까지의 42.195㎞。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번 국제마라톤에 대비, 치밀한 준비작업을 벌여왔는데 대회에 동원되는 경기진행 임원만도 5백80명。게시임원 25명, 기록원 40명, 소집요원 16명, 표지판요원 52명, 보조원 2백45명등 국내육상임원이 총동원된다。육상연맹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합동훈련을 통해 진행을 최종점검하고 코스를 세밀히 점검하게된다。대회총경비는 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대회 진행질서를 위해 동원되는 경찰만도 5천4백여명。이밖에 헌병도 요소요소에 배치된다。경찰 헬리콥터와 세스나 경비행기가 경기진행상황을 살피게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5㎞지점마다 텐트와 진행요원을 위한 테이블, 선수들의 음료대를 설치했으며 앰뷸런스 1대씩을 배치하게 된다。

◇코스 구간표

구분	지점	선두통과 예정시간
5㎞	수산시장	15분35초
10㎞	반포주공	31분10초
15㎞	성수대교	46분50초
20㎞	서울체고	1시간2분20초
25㎞	구의저수지	1시간18분4초
30㎞	용비교	1시간33분39초
35㎞	쌍용양회	1시간49분4초
40㎞	서울대교	2시간1분36초
골인	KBS본관	2시간12분0초

서울市廳·忠義·高麗大등 약체팀 꺾고 1승

蹴球선수권

제30회 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 2일째경기가 24일 孝昌구장서 속행, 서울市廳·忠義(이상9조)高麗大(8조)가 각각 승리했다。議政府구장서는 關東大(4조)가, 水原구장에서는 慶尙大(5조)가 각각이겼다。

서울市廳은 全北大와의 경기에서 후반20분 金賢詰이 페널티에리어 우측에서 朴大濟가 패스한 볼을 득점에연결, 결승점을 올렸다。

한편 忠義는 전반서 辛文善과 崔昌壽가 각각 1골씩 뽑내 光云大에 2—0으로이겼고, 高麗大는 전반18분 李泰昊가, 후반15분 趙毓衍이 1점씩 얻어 승세를 굳히고 全南大를 3—0으로눌렀다。

◇제2일전적

▲9조

서울시청 1 (1—0, 0—0) 0 전북대학

충의 2 (2—0, 0—0) 0 광운대

▲4조

관동대학 2 (2—0, 0—1) 1 외환은행

▲5조

경상대학 2 (2—0, 0—0) 0 현대자동차

▲8조

고려대학 3 (2—0, 1—0) 0 전남대학

◇忠義와 光云大의 9조경기。忠義는 辛文善 崔昌壽의 전반 득점으로완승했다。

RSC 3개

學生 아마복싱

제14회 학생신인 아마복싱선수권대회 3일째경기가 24일 서울운동장배구장에서 속행, 고등부 밴텀급 2회전서 RSC 3개가나오는등 화끈한 접전이 속출했다。

전남체고의 金起台는 淸州농고 鄭哲義와맞서 강한라이트스트레이트를 폭발시켜 2회 1분40초만에 RSC로이겼다。

延世大등 6強에

大學농구 中大도 합류

延世大, 中央大, 高麗大, 建國大가 6強리그에 올랐다。24일 장충체육관서 속행된 제19회춘계대학농구연맹전 4일째경기에서 B조의 延世大는 東國大의 추격을 뿌리치고 100—90으로 승리,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제4일전적

▲B조

연세대학 100 (53—45, 47—45) 90 동국대학 (2승) (1승1패)

국민대학 80 (34—29, 46—33) 62 단국대학 (1승1패) (2패)

▲C조

건국대학 87 (41—27, 46—40) 67 인천체전 (2승1패) (2패)

▲A조

중앙대학 78 (30—31, 48—40) 71 명지대학 (3승) (2승2패)

경희대학 70 (35—25, 26—36, 연장 9—8) 69 한양대학 (2승1패) (1승2패)

스포츠短信

◆少年體典 홍보표어 選定

충남도는 24일 제11회소년체전 홍보표어로 「소년체전 충남자랑 88체전 나라자랑」(大田大洞國校 교사 盧正善)등 10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점의 표어는 지난 2월말까지 모집한 3백84점중 2차심사를 실시 최종 선정된것。【大田=鄭】

◆韓國野球委 어제 현판식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4일 문교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받아 이날 상오10시 동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趙廣來·朴成華 국가대표 사퇴

◇趙廣來

◇朴成華

"體力에 한계 所屬팀서만 뛰겠다"

蹴協, 오늘 긴급理事會 受諾여부 결정

한국축구 대표팀주장 趙廣來(28)와 수비진의 대들보 朴成華(27)가 대표선수 사퇴서를 24일축구협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체력으로는 대표팀에서 계속 활동하기 힘들고 후배들에게 길을터주기 위해 심사숙고끝에 사퇴를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21일 제10회 韓日정기전이 끝난후 金正男대표팀코치에게 자퇴의뜻을 밝혔었다。

국가대표팀 주전멤버를 잃게된 축구협회는 2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사퇴수락여부를 논의한다。趙·朴두선수가 대표팀서 사퇴할경우 한국대표팀은 큰 전력손실을 입게된다。

지난 79년12월 육군에 입대, 忠義팀에서 활약해온 이들은 25일 제대한후 趙는 大宇서, 朴은 프로팀 할렐루야에 각각 입단할 예정이었다。

晋州高를 거쳐 延世大를 졸업한 趙는 74년12월 대표팀에 뽑혔고 東萊高 高麗大출신인 朴은 75년초 대표선수로 발탁됐었다。

기혼인 두선수는 잇단 해외원정과 합숙훈련등으로 안정된 가정 생활에 큰제약을 받아 고민해왔다。

프로 美式축구에 20億弗 中繼계약

【피닉스(美애리조나州)AP聯】美國프로 미식축구 연맹(NFL)은 美國 3대TV방송국인 CBS·ABC·NBC와 중계료사상 최대액인 20억달러(한화1조4천억여원)로 중계권계약을 맺었다。기한은 86년까지로 NFL은 매년 TV3社로 부터 4억달러를 받게되는 셈이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사장님, 저를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직원으로 취급하는걸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저는 회사의 지배인이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건…" —쾅—

"이런…말하려 했던걸 깜박 잊었잖아"

"어쨌든, 중요한건 아니었을거야"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K.T.PUBLISHING
WHY NOT PRINT YOUR PAPER HERE?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신문인쇄 전문
(윤전기 4대 가동중)
WHY NOT GIVE US A CALL
☎ : 533—2361
Ask for Susan or Lawrence
9:00 a.m.-6:00 p.m. Monday - Friday
NO JOB IS TOO SMALL!

"당신이 알아야 할 두가지 온타리오 프로그램"

세금크레딧—65세미만 사람들을 위한

매년 온타리오 정부는 온타리오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낮은 소득을 지닌 16세부터 64세까지의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세금크레딧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금년에는 새로운 세금혜택 즉 부동산세, 판매세, 정치기부금등 세금공제 혜택이주어진다. 이러한 공제혜택을 당신은 연한 자주색 온타리오 세금공제 용지에 완전히 기술해서 당신의 연방소득세 신고를 할때 같이 우송하는것을 기억해야 한다.

■ **일시적 가정난방 크레딧**은 증가된 가정난방 비용을 상쇄함에 의해서 온타리오 주민들을 도와준다. 이 60달러 크레딧은 당신의 소득분(세금을 낼)의 1%에의해 감소된다.

■ **부동산세 크레딧**은 시와 교육세금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이것은 당신의 부동산세, 렌트, 세금을 낼 소득에 근거를 둔다.

■ **판매세 크레딧**은 주소매 판매세의 지불된 돈의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개인 면제분과 소득에 근거한다.

■ **정기 기부금 크레딧**은 등록된 온타리오주 선거에 있어 온타리오 정당이나 선거구 또는 온타리오주선거에 후보자에게 금액을 기부한 온타리오 주민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이 요구는 만약 당신의 지불할 주세금이 당신의 부동산세나 판매세 크레딧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세금 보조—65세이상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온타리오 세금보조금은 특히 65세 또는 그이상을 위해 고안 되었으며, 이러한 년령그룹 사람들에게 온타리오세금 크레딧 계획으로 교체되었다.

금년에는 일시적 가정난방보조금 60달러가 세금보조금 프로그램에 가산되었다.

만약 당신이 1981년 부동산세 보조금을 받고 계속 자격이 있다면 당신은 금년봄 말경 당신의 1982년 중간보조금 외에 1981년 가정난방 보조금을 받게될 것이다.

부동산세를 지불안하는 요양원이나 시립원 거주자는 부동산세 보조금이나 일시적 가정난방 보조금 둘다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판매세 보조금 혜택은 해당된다.

보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면 다국어부 센타에 전화하면 된다.

■ In Metro Toronto— dial 965-8470
■ In Area Code 807— ask the Operator for Zenith 8-2000
■ In all other areas— dial 1-800-268-7121

or write to:

Ministry of Revenue, Guaranteed Income and Tax Credit Branch,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X8

Ministry of Revenue Ontario
George Ashe Minister
T.M. Russell Deputy Minister

高校부터 科學英才 교육

84년실시…市道마다 1개特殊校 세워

내년 水原에 시범학교
우수學生은 學費무료

정부는 우수한 두뇌를 조기에 발굴, 전문과학인으로 키우기위한 과학특수고등학교를 전국13개시·도에 각 1개교씩 설립, 운영키로했다. 문교부는 23일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아래서는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우수한 과학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과학특수고교를 설립키로하고, 우선 83학년도에 경기도 水原에 시범학교를 신설, 신입생을 모집한뒤 84학년도부터 전국에 확대설립키로했다。

문교부당국자는 이날 과학고교의 설립배경에대해 ▲올해 대입학력고사 3백점이상 학생에대한 진학조사에서 8백60명 거의 전원이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한것으로 나타나 자연과학분야에 우수한학생이 진학을 기피하는것으로 밝혀지고 ▲최근몇해동안 대입학력고사과목에서 자연과학분야과목인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중하나를 택일하도록 되어있어 학생들이 과학실력향상을 게을리하며 ▲교사들도 자연히 사기가떨어져 현행제도에서는 올바른과학교육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수 없다는판단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이같은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현행교육제에서 과학인재를 확보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영재교육의 일환으로현재 독일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의 예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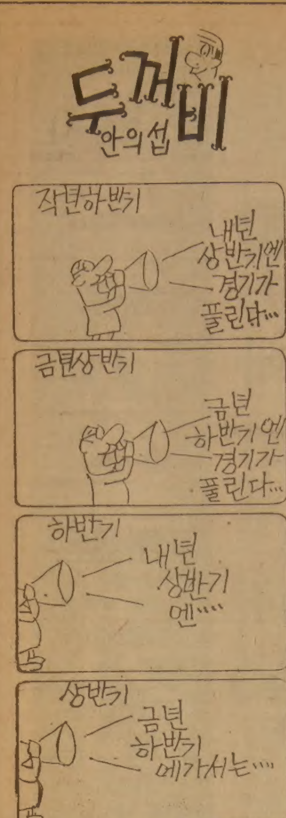
문교부가 마련한 과학고교운영방안에의하면 선발은 일반고교와는 달리 필기시험없이 전형위원회를 설치, 이곳에서 ①중학교전과정의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특히 과학·수학에 성적이 우수해야 하며 ②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중 출신학교장의 추천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심사한다。

학교교육은 주로 실험을 중심으로 하여 전과정중 30%이상을 과학기술과목으로 하며, 졸업생이 진학할경우 반드시 기초·응용·의학등 자연과학부문에 진학하는것을 의무화 한다。또 대입시는 일반고교처럼「입시공부」에 소홀한점을 감안, 정원외 모집등 특전을 주도록 한다는 것。

특히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내년도에 문을열게될 水原과학고등학교는 이미 기숙사마련을 위해 종전의 水原農高기숙사 건물을 확보해놓았다。

이방안은 또 성적이 우수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비전액을 무료로 하는 특전까지 마련해 놓고있다。

"놀이터가 없어요" 大邱市 두류공원옆하수도 공사장에는 놀이터가없는 동네 어린이들이모여 시멘트 하수도관을타고 위험한 놀이를 하고있어 위험하기 짝이없다。【大邱=鄭在斗기자】



四溟大師가 꿈인 꼬마스님이 꺼져간다

通度寺 15세의 慧哲사미승 心不全症으로 死境의 病床에

"사는것은 좋은일이나 萬物은輪廻"

새같은 가슴 할딱이며 金剛經 술술외워
手術費1천만원…옆患者위로說法하기도

◇通度寺「꼬마스님」宋富龍군이 심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고있다。간호하는 李忍山스님은 안타깝기만 하다。

『선생님들은 四溟대사를 알고계시죠。대사님은 나이어려 출가, 고행으로 득도하시고 후에는 의병대장이 되신 분이예요…』

23일낮의 세브란스 병원 52동 5백51호。병상의「꼬마스님」이 가쁜숨을 몰아쉬며 설법을 시작하면 병실은 어느사이 조용해 진다。같은방의 환자는 물론 옆병실의 환자들까지 건너와 이 낯설은 꼬마스님의 이야기에 빨려든다。『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그가 설법 중간중간에 불경을외며 합장이라도할라치면 주위는 어느새 절간이되고 사바세계의 환자들은 무한한 평안을 얻는다。

하지만 꼬마스님의 설법은 5분을 채못넘긴다。꺼질듯 갸날픈가슴을 더못견디고 쉬어야하기 때문이다。

올해15세의 사미승 慧哲(속명 宋富龍)이 불도를 닦던 경남通度寺를떠나 이병원에 입원한것은 지난18일。1주일간의 정밀조사 끝에 심장의 4개판막중2개가 기능을 잃었고 그결과 격심한 심부전증(心不全症)상태로 진단이 내려졌다。심장에서 혈액을 박으로 뿜어내는 기능에 이상이생겼다는 설명이었고 속히 수술을받지못하면 살가망이 없다는게 최종적인 진단이었다。

자칫 15살의나이로 생을 마칠지도 모를 꼬마스님의 고향은 密陽。젊은세월이지만 그가걸어온 불도의길은 그렇게 범상치만은 않다。아버지는 너무어려 사망, 기억도없고 어머니는 6세되던해 재혼,부산으로 간뒤 소식이 없었다。꼬마스님은 그해 출가했다。친척들에 의해 密陽 表忠寺에 맡겨진것。불자로서의 고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사리손으로 나무하고 밥짓는 행자의 고행이 계속됐고 부지런해 선배스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나이13세되던해 表忠寺스님들은 이꼬마를 큰스님으로 키우는 방법을 의논한끝에 더 큰사찰인 명찰通度寺로 보내기로했다。꼬마스님이 表忠寺를 떠나던날 선배스님들은아들을뺏기는듯한속세의아픔을 느껴야만했다。

通度寺에서 꼬마스님은 큰스님들의 시중을들며 밤낮으로 불도를 닦았다。

東國大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한뒤 通度寺에와있던 李忍山스님이 그의 영리함과 성실성에감복, 근처보광중학에 입학시켜 학비를 대주는한편 밤에는 불경을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宋군은 세상공부도 잘해 학교에서는 줄곧 전교1~2등을 차지했다。밤에는 대웅전에나가 李스님의 가르침을복습。『般若心經』『千手經』은 물론 수준높은『華嚴經』『金剛經』까지 술술외울정도였다。

꼬마스님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것은 지난2월초。

심한기침과함께 가끔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다가 곧 병이 더깊어져 숨이차서걷지도 못할지경이 됐다。

꼬마스님을 진단한 세브란스병원의 내과 李雄求박사는『당장 인공판막이식수술을 하지않으면 심장기능이 마비돼 살가망이없다』는 진단과함께 수술비로 1천만원이든다고 선언을했다。

이의사의 한마디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병원이 제시한 막대한수술비용은 꼬마스님에겐 애당초 생소한 액수였다。

함께 상경한 李忍山스님도 속수무책이었다。그러나 李스님은 그냥 앉아 있을수만은 없었다。즉시 通度寺로 내려가 동분서주한끝에 1백50여만원을 마련해왔다。그러나 이정도로는 태부족이었고 더이상대책이 없었다。

꼬마스님은 오늘도 작은 가슴을 할딱이며 수술을 받지못한채 그대로 누워있다。

초조하고 답답해야할 꼬마스님이지만 그는 이상하리만큼 평화스런 모습이다。기자가 이날 병실을찾았을때도 꼬마스님은 옆자리에 1개월째누워있는 백혈병환자 金光日씨(25·선원)를 위로하고있었다。오히려안스러운듯金씨는『저렇게착하고 의젓한 스님은 처음봤다。어떻게든 살릴길이 없겠느냐』고 안타까와했다。이야기를듣던 꼬마스님은『사는것은 좋은일이나 모든것이 윤회가아니냐』고 되려 조용한미소로 대답했다。

제2의 四溟대사를 꿈꾸는 꼬마스님。그의 진지한 소망이 꺾여서야 되겠는가。【金宗來기자】

"쥐약먹으면 정말 죽을까"

滿醉청년 1명死亡
2명은 重態

【麗水】한마을 청년 3명이 술에만취, 쥐약을 술에타 마신뒤 1명은 숨지고 2명은 중태다。

23일밤11시30분께 전남麗川郡南面島島里 마을 부녀회 연쇄점에서 술을마시던 이마을청년 具喜日씨(21) 崔閏씨(26) 金錫基씨(27)등 3명이 쥐약을먹으면 정말로 사람이 죽을까하고 농담을주고받다가 연쇄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쥐약20㎖짜리 3병을 2홉들이 소주에 탄뒤 서로 나누어먹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 잠을잤는데 다음날인 24일상오8시께 具씨는 숨지고 崔씨등 2명은 麗川郡 보건소 남면지소로옮겨 치료를 받고있으나 중태다。【聯】

朴某추가 지명手配

학원소요때 丁淳喆 배후조종한

美文化院방화

【釜山=盧基昌기자】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1주일이 지난 24일현재 丁淳喆 李鎬喆등유력한 용의자외에 丁과함께 학원소요를 배후조종했던 朴모(30)도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고 함께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외의 문제학생들도 범행계획에 관계했을것으로 추정,釜山을 비롯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요주동자급들을 찾고있는데 휘발유를 사간 범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79년 釜山사태때 불온전단을 뿌린 鄭모씨(27)의 신병을 확보, 이번 사건과의 관련여부를캐고있으나 뚜렷한 혐의점이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불온유인물 살포
前新民黨員 구속

【釜山】부산中部경찰서는 24일 정부를 비방하는 불온유인물을 만들어 학원가에살포하고 대학교수·금융인·정치인들에게 우송해오던 李만재씨(35·전신민당원·釜山市南區龍湖1洞422)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8월초 현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1백30여장을 만들어 전국대학총·학장및 모은행 부산지점장등 금융계인사들에게 우송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불온유인물 6백장을 작성, 大邱에 있는 金모씨(26세가량)에게 행동비 1만원을 주고 50장을 大邱에서살포케했고, 50장은 자신이 永登浦구치소에 있을때 알게된 모대학 제적생 유인열씨에게 全南·北지방에 뿌리게했으며 지난3일하오3시에는 東亞大에 1백장등을 살포한뒤 나머지1백68장을 보관하고 있었던혐

學生 행사동원말라

문교부、國慶日등은 例外

문교부는 24일 각종행사때 학생동원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고 이에관한「교육행정관리규정」을 제정、각시도교위에 시달했다。이규정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들은 3·1절등 4대국경일과 현충일 한글날 국가원수가 임석하는 행사이외에는 절대로 동원될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타기관이 학생동원을 요청할때는 반드시 해당학교의 차상급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시켰다。

왔다는것。【聯】

비밀課外 또 적발

14명 지도해온 女高미술교사 令狀

서울鍾路경찰서는 24일 서울鍾路區仁寺洞 東一빌딩704호에서 비밀미술과외교습을해온 서울P여고 미술교사 申鍾燮씨(43·서울道峰區牛耳洞73의79)를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여고 3년 裵모양(18)등 학생14명의 명단을 해당학교에 통보하는한편 학부모들의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의하면 申교사는 지난해 12월27일 東一빌딩에 20평짜리 사무실을 부인 朴모씨(38)명의로 임대, 자신이 재직중인 P여고 2~3학년 학생8명과 이들이 소개한 C고교생3명등 모두 14명에게 월6~7만원씩을 받고 하루 3시간씩 미술과외지도를 해왔다는것이다。

心臟病막으려면 담배끊어라

美보건統計센터 조사보고서 권고

골초중 80%가 血液내 일산화炭素量 위험수준

【워싱턴=UPI】흡연자의 약80%가 혈액내의 일산화탄소함유량이 위험수준에 달하고있다고 전국 보건통계센터가18일 밝혔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흡연자는 5%미만만이 일산화탄소함유량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내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한다。

건강한 비흡연자는 혈액중일산화탄소가 2%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간주된다。

전국 보건통계센터는『흡연자는 20·8%만이 일산화탄소함유량이 2%미만이었던것에 비해 비흡연자는 96·4%가 2% 미만이었고 전흡연자도 94·4%나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통계센터는『분명히 흡연이 일산화탄소의 최대공급원이다』고 결론 지었다。

전국 보건통계센터의 이보고서는 지난 76년부터 80년 사이에 실시한 전국보건및 영양실태조사에서 채취한 혈액샘플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유서쓰고 家出학생 海上서 시체로

【鎭海】23일하오5시30분께 경남鎭海市 帝皇山洞 86앞해상에서 진정갑씨(41·鎭海市 餘佐洞1街487)의 2남 봉천군(14·N중학3년)이 가출23일만에 시체로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진군은지난1일하오6시께어머니로부터 교회에 나가지말고가게일을 보라는 꾸중을 들은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가 익사체로 발견된것。【聯】

등기편지속 手票없어져

【龜尾】龜尾경찰서는 24일 등기편지속에 넣어 부친수표가 배달과정에서 없어지고편지만 배달됐다는 대구D중학교 교사 안경이씨(40)의 진정에따라 조사에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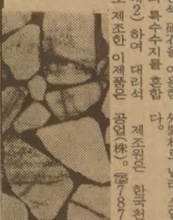
안씨에 따르면 지난22일상오10시께 大邱市壽城우체국에서 경북善山郡 善山邑 上洞 이용운씨(45)앞으로 등기편지를 보내면서 농협발행 1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넣어 함께부쳤으나 23일상오 11시께 이씨가 편지를 받았을때는 수표가 없어졌다는것。【聯】

梨花莊서 추모예배 李박사 百7회生日

故雩南 李承晩박사 1백7회탄신 추모예배가 26일하오3시 鍾路區梨花洞1 梨花莊에서 李在股목사 집례로 거행된다。

새商品

모자이크 大理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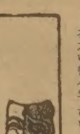
건축내장재로 타일을 대신해 쓸수있는「모자이크大理石」이 3월중 시판된다。

자연석 破石을 이용한 碎石과 특수수지를 혼합(8대2)하여 대리석 板材로 제조한 이제품은 자연대리석보다 무게가 절반(1사이당2·8㎏)밖에 안되고 강도는 배이상이며 색상이 다양하고 값도 싸(자연대리석의40%정도)화장실, 욕탕, 테라스의 바닥및 벽체등 타일을 대신한內外裝材로 널리 쓰일수있다。

제조원은 한국천연석공업(株)。☎7871。

71세의「슈퍼맨」

턱걸이대회 4連覇 池河旭옹



키 1m53㎝, 체중40㎏, 나이71세, 허리는 구부러지고 발을 옮겨놓을 기력도 별로 없어 보인다。하나 이할아버지를 얕잡아 보았다가는큰코다친다。30대의 힘과 근력을 가진 슈퍼울트라맨인것이다。

池河旭할아버지(사진·京畿 水原市仁溪洞264의1)는 지난20일YMCA체육관에서 거행된 시민턱걸이대회에서 38회의 턱걸이를 해 당당히 턱걸이왕이 됐다。지난79년 처음 이대회에 참가한 이래 4연패란기록도 함께 세웠다。

시민턱걸이대회란 YMCA가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해 3·1절기념행사의 하나로 국민학교 저학년부에서 66세이상의 노년B부등 11개부로 나누어 매년3월에개최되는대회로 올해가 9회째。이번대회에는 전국에서 72명의내노라는 턱걸이귀신들이 참가했는데 古稀를 넘긴 池씨가 후배들을 물리치고 노년A부(61~65세)B부(66세이상)를 통틀어최다턱걸이 기록을 세운것이다。

71세의 나이에 국민학교 5~6학년생체격을가진할아버지가어디에서 저런 괴력이나올수있을까。건강타령을하며 보약을 먹고 몸에좋다는음식을 찾아 헤매며 골골하는 젊은이들에겐 불가사의가 아닐수없다。

젊을때 허약체질「작심 50여년」

池씨가 처음 철봉대에 매달린것은 20세때。워낙 허약했던 池씨가 주위로부터『오래살긴 틀렸다』는말을듣고 요즘말로「작심」을했다。그후 池씨는 하루도 철봉을 놓아본적이 없다。20년전부터는 온수마찰도겸했다。

池씨의 일과는 3시기상으로 시작된다。기상과 함께 30분간 묵상에 잠긴다。그리곤 누워서 아령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고 아령을들고 제자리뛰기를 30분간한다。날이 밝으면 마당청소에서부터 화단손질에까지 池씨의 손이 안가는곳이 없다。

그리곤 뒷마당의 철봉대에 매달려 한껏 묘기를 부린다。50년전체중과 변함없다는 池씨는 5㎏짜리 쇠를 발에 매달기까지 한다。그것도모자라 가끔 水原의 八達山을 토끼처럼 뛰어 오르기도 한다。

「정신과 육체의 조화」。이것이 池씨의 건강관이다。『요즘 젊은이들은 잘먹는걸 보신의 길로 아는 모양이지?』술, 담배,여자로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돈으로「건강」을 사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2. 주 소:
3. 전 화:
4. 생년월일:
5. 특 기:
6. 학 력(최종학교명):
7. 직 업:
8. 신 장: 인치
   체 중: LBS.
   바 스 트: 인치
   웨이스트: 인치
   히 프: 인치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전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 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홍 대 ☎ : 493-8894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툰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전화: 766-5639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661-1819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핑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쪽)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퐁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처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크레딧·카드로 광고비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533-2364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분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킹스톤×미드랜드)
전화:266-6355

입주해서 할머니 보살필 한국여성 구함
전화:231-7991 Mrs. Kim

정원사 구함, 신체건장한 남자로써 영어나 일본어를 필요로 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298-3316 Mrs.가라사와

유 경험자 캐셔 구함.
☎: 656-3020

여자캐쉬어 유경험자 구함
(동부지역) 전화: 465-3132 Mrs. 유

"급 구"
애기 보아주실 할머니 구함.(서부지역)
전화: 241-4755

스토아 유경험자 캐셔구함 (남,녀관계 없음)
학생 환영함. FULL TIME도 가능함.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전화: 368-8147(오전중에 연락바람)

구 혼

배우자 구함. 본인은 현재 캐나다 방문중인 현 39세의 건강한 독신남자임.
연락처:537-0238 Mr.Kim

매매및 양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결된 2층 건물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7개의 방, 4개의 침실 그리고 차도가 딸려있음.
좋은 상업지역, (PAPE × DANFORTH)
수퍼마켓 (WOODBINE × DANFORTH)
한가족이 하기에 꼭 적합한 사업입니다.
아스킹: $35,000 주매상: $7,500
OPEN HOUR: 6 DAYS/WEEK 9a.m. – 6p.m.
CALL JOHN GEORGAKOPOULOS 전화: 493-6250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급 매"(아파트 밀집지역)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7,500 ☎: 248-0823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684 St. Clair.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485-9419(Mr. 최)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지렁이 사업을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있음. ☎ 651-6543(Mr. Lee)

직접 만드는 델리카티슨(빵집) 매매.
새장비 구입,워크-인 쿨러,바튼지역임.(오릴리아)
아스킹:$59,000+스탁
전화:862-0788 교환 53 Mr.Don Whitfield,
A.E.Lepage(Ont.) Ltd.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장래성이 확실하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새로 지은 Mall안에 Convience Store매매, 모든 장비 갖춰 있음.
☎: 267-8747 Mr. Sherman

40여개의 가구달린 방을 가진 최고급 ADULT 빌딩
총년수입: $215,000 다운페이: $200,000
전화: 635-6847

타 사업관계로 선물쎈타 급매
전화: 535-2143 Mrs. Le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783-0134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533-2364 김.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상류 미시사가 지역 (PRIVATE SALE)
4 베드룸, 2730 Sq.ft.의 2층집.
FIRE PLACE 및 견고한(돌) 건축.
그 외 많은 좋은 조건의 EXTRA
문의: 820-0748 피 터

가정의 벗 한국일보

하우스 렌트

2베드룸 (Flat) 세놓음. (6시이후연락바람)
$350(월)+가스+하이드로, Stove냉장고 있음.
크리스티·블루어 써브웨이중간☎851-1314

독신자에 한함. 월 $190
가구 갖춰 있음(St. Clair W. 근방)
☎: 763-3289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크로스웨이 꽃집 (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전화: (B) 535-1355 (R) 757-0905 님파 김

정 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690-2216 Mr. 최규홀

World Book(백과사전)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E.LEPAGE (우명이)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웅☎: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225-1204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8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534-1085 김 춘 택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533-7966

Mister Oh for Men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425-8585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759-8512 최 열 호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일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34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536-8666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00AM~1:00AM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742-1618

기 타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Lady "M"을 찾아 오세요.
1344 ST. CLAIR. W. 전화: 652-1495

＊한국일보 안내광고＊

2ND CLASS MAIL NO. 5248